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JUN 17 1981

The Korea Times Toronto (Daily)

(일간) No. 537 1981년6월11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 (416) 533-2361 Thursday, June 11,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p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최수호·조영구씨 2년형
TTC 위조사건 선고
검찰측 항소할지도

서울형사지방법원은 토론토 버스표 위조범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조영구, 최수호씨에 각 징역 2년을, 이춘열씨에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메트로경찰 사기전담반이 3일 전했다.

사기전담반 로날드·메이슨 형사는 지난 29일 아침10시 서울 형사지방법원 214호실에서 있은 선고공판 결과에대해 한국검찰측이 형량에 불만, 항소할것으로 보이나 아직 확실한 소식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들이 캐나다 시민권자이므로 형기를 치르고 난 뒤에는 캐나다로 추방될것이 분명하며, 현재로서는 물적 증거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메트로경찰이이들을 캐나다법에의거, 기소할 가능성은 없다고메이슨 형사는 말했다.

살인율 17% 감소
80년도에 총 493건

(오타와)작년도 캐나다의 살인사건은 79년도보다 17%가 줄어 493건이었다.

10만명당 2.06명이 피살된 80년도 살인율은 72년도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60년대에는 매년 살인사건이 증가, 75년도에 절정에 이르러 10만명당 3.07건이었다.

살인자에대한 사형선고가 폐지된 76년도에 살인율은 감소했다가 77년에다시 3.05건으로 증가한이후 살인사건은 계속줄어 들었다.

경찰및 교도관들은 사형선고제도의 부활을 강력히 주장하고 야당인 보수당은 의회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으나 트루도수상은 사형제도의 부활에 반대했다.

자유찾는「폴」국민 월5백명 조국떠나

(제네바)금년들어 한달에 5백명 이상의 폴랜드인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제국으로의 망명을 모색하기위해 폴랜드를 떠났다고 국제간 이주위원회 직원들이 말했다.

◇영국 버밍햄에서 열린 유럽미인대회에서 덴마크의 라센양(가운데)이 최고의 미인으로 뽑혔다. 2위는 미스·홀랜드(오른쪽), 3위는 미스·이태리(왼쪽).

공립학교에 탁아소 설치
방과후 아동 돌보기 위해

토론토교육위원회는1984년 9월1일까지 각 퍼블릭스쿨내에 데이케어센터 를 부설시킬 계획임이 밝혀졌다.

11일 공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약 4 백개정도밖에 안되는 토론토의 데이·케어시설은 82년도에 1천개, 84년도에는 3,600개로 증가, 유치원 수업이 끝나는 낮12시께부터부모가 직장에서 퇴근할 때까지 어린이들을 돌봐준다.

토론토시 교육위의 존·베이츠씨는 현재 데이·케어시설이 훨씬 부족한데다가 일부 에트닉계 부모들이 자녀를 데이·케어·센터에 넣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많은 어린이들이 방과후 혼자서 지내는 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의 작성자 가운데 한 사람인 시의원 페니·모쓰씨는 또한 "TV가 있는 아파트가 어린이성장에 안전한 환경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퍼블릭·스쿨이 더 적당한 환경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촤일드·케어·센터는 민족·문화·언어적 배경을 달리하는 각 코뮤니티의 요구에 잘 따르는 성격을 가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각 에트닉·코뮤니티출신의 교사들이 고용되야 한다고주장했다.

"영어교육을 돕는 방법"
부모위한 씨알 교육강좌

"자녀들의 영어교육을 어떻게 도울수 있나?"는 제목의 부모를 위한 교육강좌가 열린다.

오는 20일(토) 오전9 시부터 12시까지 디어·파·퍼블릭스쿨(23 Ferndale Av.)에서 한인교육 연구회와 씨알한국인학교가 공동주최하는 이 강좌는 지금까지 한인 학부형을 상대로 한 강좌가 대부분 가정교육, 한글교육에 관한 것이었던데 비해 영어교육에 관한 것이란 점이 특이하다.

강좌의 내용은 1) 컴프리헨션(독해력을 길러주는 방법), 2) 보케블러리·빌딩(어휘발달촉진 방법), 3) S.R.A. Kit사용법 (과학적인 영어지도방법및 자료소개), 4) 리딩·머티어리얼 전시(1~9학년까지의 참고서적 전시및 현장구매), 5) 영아들을 위한 교육자료전시등이다.

강사는 10여년을 국민학교(퍼블릭·스쿨) 교사로 종사한 교육석사 윤종서씨.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베이비·씨팅이 제공 되므로 학부형들의 자녀동반 참석을 환영한다고 주최측은11일 밝혔다.

파업 7월로 연기
폴랜드 노조 합의

(와르샤와)11일로 예정됐던 폴랜드 자유노조 솔리대리티의 2시간 총파업이 노조와 정부간의 타협에의해 7월3일 이후로연기했다.

솔리대리티노조 대변인은 지난3월 북서부 비드고체츠시에서 3명의 노조원이 경찰에 테러당한데 대해 정부가 수사를 종결지을수 있는 시간여유를 주기위해 파업연기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폴랜드에는 지난 3개월간 파업이 없었다.

소련은 지난주 폴랜드지도자들에게 폴랜드 노조의 정치적 역할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가톨릭계 자녀들에 모욕?
지능 낮다는 학설 나와

(휴스턴) 어머니의 종교가 엄격한 가톨릭이거나침례교인 경우인 어린이의 지능지수가 평균적으로 낮다는 주장이 발표됐다.

휴스턴대학의 제나·블라우 박사는 흑인아동과 백인아동의 지능지수를 비교분석한 연구결과 부모의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수준및 부모의 종교와 교육방법이 어린이의 지능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머니의 종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라우박사는 시카고지역의 5·6학년 아동 흑인 549명과 백인 523명을 상대로 조사, 흑인아동이 유전적으로 백인아동보다 지능이 낮다고 결론지은 교육심리학자 아더·젠센박사의 연구를 부인하는 내용도 밝혀냈다.

블라우박사에 의하면 가장 지능지수가 높은 그룹은 백인·흑인을 막론하고 어머니가 비종파적, 비종교적 배경을 가진 경우로 평균지수가 흑인109, 백인 110이었다. 또한 가장 지능지수가 낮은 그룹은 어머니가 가톨릭인 경우로 지능지수가 흑인은 101, 백인은 103이었다.

또한 부모가 신체적 제재를 가하거나 어머니가 독선적인 성격인 경우의 아동들도 지능이 낮았다고블라우박사는 주장했다.

천명 숨져 소피하다

(맨시)지나가는 소를 피하려고 급정거를 하던 기차가 진흙탕의 강물로 뛰어들어 천여명 이상이 죽은 세계최악의 열차참사가 인도에서 발생, 9일현재잠수부들이 219구의 시체를 발굴했다.

사고는 기차가 인도 갠지스강의 주류인 코시리버쪽으로 흐르는 바그마티강을 건너던중 철로를 건너는 소를 피하려 기관사가 급정거를 하는순간 강풍이 몰아쳐 7량의차량이 150피트 강속으로 거꾸로 박히게 된것이다.

기관사와 엔지니어는 사고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고, 차량이 물속에 빠지기 직전 강속으로 투신한 80여명의 승객들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가난 맨시의 주민들은 사고후 도주한 기관사와 엔지니어를 붙잡아 몰매를 때렸다고 주장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세계사상 최악의 열차사고는 1917년 12월12일 프랑스 모데인에서 543명이 죽은 것이다.

여자단체 캐나다 격파
한국탁구, 준결목표

지난 10일(수) 이토비콕 올림피움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노위치·유니온 보험회사 주최 캐나다 오픈 탁구 남·녀 단체전 경기에서 한국여자팀(남A, B조, 여A, B, C조)은 1, 2 회전에서 캐나다팀을 격파, 우승을 향한 문턱에 한걸음 다가 섰다.

남자팀은 의외로 약한 파키스탄및 이태리에게 패배, 준결승진출 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참가국 13개국중 유일하게 고교선수들로 구성된 한국선수팀은 세계탁구종주국으로 일컬어지는 중공이 국가대표급및 세계선수권자들을 파견한 탓으로 우승보다는준우승 목표를 두고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에는 단체전 준결승및 결승이 벌어지며, 12일부터는 개인전, 복식, 혼합복식 경기가 시작된다.

미국, 이스라엘 제재
F-16 전투기 양도 중단

(워싱턴) 미국은 10일 이스라엘이 이락 원자로를 기습·파괴한 것이 미·이스라엘협정을 위반했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이날로예정된 4대의 신예 F-16제트전투기의 대이스라엘 수송을 중지했다.

알렉산더·헤이그 미국무장관은 10일 이스라엘의 기습감행이 1952년 맺은이스라엘과의 군사판매협정을 크게 위반했을지도 모르므로 전투기 선적을 중지 했으며, 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락 원자로 공격이 이스라엘의 주장대로 방위에 필요불가결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헤이그장관은 말했다.

지하핵공장

(텔아비브)베긴이스라엘 수상은 지난 7일의 이락핵발전소 폭파를 변호, "발전소의 지하 40피트에는특별 시설물이 있었고 우리는 이때문에 공습한 것이다"라고 11일 말했다.

베긴수상은 이락이 국제핵확산 감시를 피하기위해 지하 핵무기공장을 건설' 완공단계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그같은 시설을 갖추려면 5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용사초청 파티
6·25 31주년 맞아

토론토한국총영사관(총영사 이상훈)은6·25동란 31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 캐나다용사들을 초청, 불고기파티를 베푼다.

이 파티는 오는 25일(목) 하오7시 다운스뷰캐나다군기지(더퍼린×쉐파드)에서 열린다.

파티에 참석하는 교포들의 부인들은 가급적 한복을 입어달라고 총영사관은 요망했다.

캐나다는 참전 16개국중 하나였다.

「캐라반」 19일에

토론토거주 이민족들의 종합문화제전「캐라반」이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시내 44개소에서 열린다.

토론토 한인회는 금년행사에 불참을 통고했기 때문에 한민족을 대표할「서울관」은 설치되지 않는다.

금번이 13번째인 캐라반제전에서 각 민족은 자기나라를 상징하는 지명을붙인 전시관(Pavillion)을 설치, 문화와 민속을 보여줘 민족간의 이해를 돕고 우의를 증진한다.

작년도 캐라반 참관자는 약2백만명이었다.

금년"패스포트"(입장용 여권)가격은 10달러, 패스포트를 사면 44개 각 민족관을 모두 구경할수 있다. 12세미만 어린이는 성인이 동반했을때는 무료, CN타워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각국관을 순회하며, 개관시간은 평일하오6~밤11시, 주말하오3~밤11시까지 이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2361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각종보험

백 용 빈
SUNLIFE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B)497-3800
(R)284-9052

여러분의 삼복식품
①물오징어 BOX당 $12.95
②조기(굴비용) BOX당 $55.50
③물미역 BOX당 $44.50
④미역줄기 BOX당 $44.50
⑤당면 BOX당 $120.00
⑥냉면 BOX당 $45.80
⑦이면수 1 lb당 $2.95 (½price)
⑧삼치 1 lb당 $2.25 (½price)
⑨한국산고추가루 lb당 $3.45
⑩한국산 동태 1 lb당 $1.25
743-8270

운동구점 개업
그동안 SIMPON'S백화점 운동구부에서 EQUIPMENT SPECIALIST로 근무하던 이건영입니다. 교포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운동구점을 내었사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olf
※Lynx Predator Plus $589.98
※각종 골프 Shoes
각종 골프 Cart. Bag
Base Ball
●단체유니폼 마춤
●각종 트로피 취급
Tennis
●최고급 라켓및 유아용 완비
BLOOR
ROBERT
SPADINA
SUSSEX
HABORD
VARISTY스포츠점
252 Robert St. Toronto Tel:967-7304
이 건 영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 호 섭

제일여행사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 (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 (VANCOUVER 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유 지 원 전 병 호
621 BLOOR ST. W.
(B)535-2377
(R)366-0864

M5S

무법천지…나성 한인조직갱단

LA경찰 확인, 8명 살해 사건과관련

(나성지사) LA 경찰국은 한인사회에 조직갱단 두목급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법에 의해 다스릴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즈는 8일자 신문 메트로판 톱기사에서 『경찰은 LA한인사회의 조직범죄의 위협을 주시한다』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이보도에서 [illegible]·게이츠 LA경찰국장은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한인사회의 갱단두목이 누구인줄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는 한인사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나 아직은 그 사람과 그의 심복들을 재판에 회부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LA타임즈의 레나드·그린우드기자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갱단두목은 4년전에 LA에 왔으며 그때부터 이곳 갱들을 휘어잡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완전한 정보가 다 갖추어지지 않았으나 이들 조직갱단은 한인사회 비지니스업소로부터 갖가지 방법으로 금전을 갈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업소주인의 가족에게도 공갈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LA타임즈는 이같은 범죄가 묵인될 수 있다는것은 한인사회자체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허버트·스타인리츠 LA 검찰차장의 인터뷰에서 한인사회는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증언을 기피하고 있어 검찰당국에서도 한인관계사건이라면 나쁜 평판이 돌정도라고 밝혔다.

이같은 증언거부이유는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조직갱단의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이같은 보복으로 비지니스를 망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사회조직갱단의 보스가 중년의 사나이라고 밝힌 LA타임즈는 이두목은 약7명의 심복을 거느리고 있으며 휘하에 4백명정도의 추종자들이 있다고 수집된 정보를 인용, 보도했다.

지난3개월동안에만도 3명의 갱단멤버가 서로간의 알력으로 살해되었으며 지금까지 약8명이 이같은 숫법으로 살해되었는데 심지어 한인사회타운사건을 맡고있는 경찰관에게 도 죽이겠다는 위협을 수차례나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LA타임즈는 월셔경찰서당국자의 말을 빌어 한인 청소년범죄도 심각성을 띠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그, 프랑스오픈서 6번째 우승

비온·보그는 7일 파리에서 거행된 프랑스 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결승전에서 이반·렌들을 3대2 (6-1,4-6,6-2,3-6,6-1)로 물리치고 동대회에서 여섯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6일 거행된 여자단식 결승전에서는 핸나·맨들리코바가 실비아·핸리카를 2대0(6-2,6-4)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기념우표 발행 촬스황태자결혼

◇촬스황태자결혼기념우표

촬스황태자와 약혼녀 다이애나양의 초상이 실린 우표가 나왔다. 이 우표는 영국정부가 7월29일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했다.

다저스 복귀운동

브루클린서, 구장 건립도 추진

57년 시즌을 끝내고 로스앤젤리스로 옮겨간 다저스팀을 다시 브루클린으로 끌어오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다저스 복귀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토마스·바르토시비츠 주상원의원.

쥬리엣없는 로미오, 거대한 폭포가 없는 나이아가라처럼 다저스없는 브루클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바르토시비츠씨는 25년간 계속된 다저스 복귀노력이 그 열매가 맺히기 전에 중단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다저스를 끌어오는 첫번째 단계인 13인 브루클린 스포츠위원회 결성에는 20만 달러만 있으면 되나 6만명을 수용할 새로운 실내야구장 건립에는 3천~4천만 달러가 필요해 공사합동으로 기금을 마련하게 되어 있다.

새 스태디움 건립예정지로는 FLATBUSH AND ATLANTIC AVE의 롱아일랜드 철도정거장이 꼽히고 있는데 1913년부터 45년간 사용되던 프로스팩트 파크 동쪽의 에베츠·필드는 1960년에 허물어져 현재 이자리에는 공공주택이 들어서 있다.

캐리주지사도 다저스 복귀운동에 적극 협조, 지난 2일을 브루클린 다저스의 날로 선포한데 이어 8AVE AND LINCOLN PLACE의 MONTAUK CLUB에서 열린 파티에 들러 다저스를 끌어오는데 다같이 힘을 합치자고 역설했다.

이날 MONTAUK CLUB에는 지난날 다저스에서 활약하던 선수들을 비롯, 수백명의 팬들이 모여 옛추억을 돌이켜 보았다.

브루클린에서 자라난 방송인 마티·그리만씨와 왕년의 다저스 캄·아브람스는 그 당시 다저스의 실황중계가 집집마다, 상점마다, 또 또는 자동차에서 퍼져나와 래디오가 필요없었다고 회상했고 로드·아일랜드에서 운동복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크랭·래빈도 지난 날의 맹활약이 바로 엊그제같다며 감회에 젖었다.

한편 소설가 데이빗·리츠씨도 다저스를 끌어오려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그는 그의 소설 「다저스를 브루클린으로 끌어온 사나이」라는 소설에서 1984년에 시점을 맞춰 여자투수가 등장, 팀을 끌어가는 다저스의 재등장을 얘기하고 있다.

배석철, 바야스와 대결 주니어밴텀급 타이틀 놓고

【서울 8일 연합통신 본지사특약】 한국의 배석철은 7일 문화 체육관에서 거행된 WBA주니어 밴텀급 도전권 결정전에서 멕시코의 라펠·페드로사를 12회 판정승으로 누르고 오는 8월안에 알젠틴의 구스타보·바야스와 선수권 쟁탈전을 벌이게 됐다.

구스타보·바야스는 도전권 결정전에서 일본의 마루야마를 KO로 물리치고 21세의 배석철과 새로 신설된 동급 타이틀를 놓고 싸우게 된다.

결혼축하

원재엽군(원재훈씨 동생)
김영희양(김시대씨 처제)
81년7월4일(토) 하오2시
한인교회
주례 : 유재신목사
피로연 : 홀러데이·인
(Hwy427×번해쓰)

연방정부 150만 투입 인종문제 근절위해

연방정부는 날로 늘어나는 인종차별주의 적인 사건을 뿌리뽑기 위한 법개정, 연구및 계몽에 150만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짐·플레밍 연방 복합문화성장관은 10일 "인종주의는 캐나다 정신의 모독"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계몽자료를작성 각지의 경찰, 교사및공무원등에게 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레밍장관은 또한 신문, 잡지, 라디오및 TV방송등 매스컴이 대중계몽을 위한 프로에 지면과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도록 촉구했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캐롤·데이터 인종관계 도시연맹회장은 "이는 연방정부가 캐나다에도 인종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너무 늦기 전에 인종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인정한 최초의 대책"이라고 환영했다.

샛별한글학교 여름학생모집

스카보로의 샛별한글 학교가 여름학교 학생들을모집하고 있다.

수업은 7월6일 오전 9시부터 8월7일까지, 매일 오전9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이다.

한 학생당 수업료는 매주 8달러이다.

샛별한글학교는 Woburn 고등학교 2222 Ellesmere Rd.(마컴·로드×엘스미어·로드 동북쪽)에 있으며 문의처는 267-2292(Mr. 문), 293-3149(Mrs. 리)이다.

캐나디안 랩소디 (7)

—Canadian Rhapsody—

글·그림 신동헌

뱅쿠버로 돌아오는 빅토리아훼리 선상에서 6년전에 이민온 박병준씨는 "저걸 보셔요 뱅쿠버를 병풍처럼 감싸고있는 높은산들의 능선이 마치 여자가 누워있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뱅쿠버가 살기좋은 곳이라고들 합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그러구보니 영락없이 빨가벗은늘씬한 여인이 다리를 벌리고 과히 점잖치못한 포오즈로 누어있는 꼴이다. 그것도 노드·뱅쿠버를 엉덩이 밑에 깔고서 말이다. 나체여인 밑에 깔려서 사니까 살기좋다.…글쎄올시다. 그런것 같기도하고 아닌것 같기도하고, 각설하고…

뱅쿠버는 브라질의 리오데·쟈네이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호주의 시드니항과 더불어 세계4대 아름다운 항구로 손꼽힌다.

1792년에 영국의 조오지·뱅쿠버(George Vancouver)선장이 이곳에 하선하여 지금의 뱅쿠버 다운·타운을 측량하고 지도도작성하였다. 나폴레온이 23세였고 베에토벤이22세 때이니 태서인들은 각 방면에서 세계를 휘어잡을듯이 혈기왕성한 때였고 우리나라에선 손바닥만한 곳에서 동인이니 서인이니 하면서 서로 상투를 휘어잡고 개싸움에 영일이 없었을때였다. 뱅쿠버란 이곳 지명이 그 선장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은 물론이지만 순수영국계 이름으로선 생소하니 나의 상식으로선 혹시 네덜랜드계의 영국시민이 아니었던가 싶다. 17세기의네덜랜드의 유명한 화가 밴다이크(Van Dyck)가 그렇고 우리나라와 인연이깊은 전 미8군사령관 밴프리트(Van Fleet)장군역시 네덜랜드계 미국인인 것에 비추어볼때 우두머리에 Van이붙는 성자가 네덜랜드인에 많으니 말이다.

하여튼 "그랜빌"이니 하는 뱅쿠버 다운·타운의거리 이름도 그때에이미 영국식으로 지어놓았다니 뱅쿠버선장은 꽤나 날쎈 친구였다고 볼수밖에 없다.

토론토에서 살다가 뱅쿠버로 오니 꼭 서울서 살다가 부산으로온 기분인데부산과 다른것은 산자수명. 이곳처럼 진짜로 산좋고물맑고, 나무가 울창하고, 바다는 휜히트여, 4박자가 제대로 들어맞는곳은 아마 세계에 드물지않나 싶다.

현재의 뱅쿠버 시민수는 120만, 토론토, 몬트리얼에 이어 캐나다에선 세번째로 큰 도시, 교포의수는 약 7,000명인데 해마다 15%정도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한국으로 부터의 새로운 이민에 보태어 캐나다 동부서나 미국에서 돈을번 교포들이 뱅쿠버가 살기좋다는 소리를 듣고 몰려온다는 얘기이다. 부동산값이 작년대비 100%이상이나 치솟았다는 얘기는 토론토에 있을때도들었는데 사실인 모양이고, 서울영동지구에서 시흥으로, 안양으로, 후조처럼휩쓸고 다니며 부동산 바람을 일으키던 떼무리들이냄새를맡고 우르르 날아올까봐 겁도날 지경이다.

뱅쿠버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장기호 영사말을 들어보자.

"뱅쿠버총영사관의 관할지역은 브리팃쉬·콜럼비아주뿐만 아니라 교포가약 8천명이 거주하는 앨버터주, 사스카츠완주, 그리고 유우콘, 노드·웨스트테러토리까지이니 전 캐나다의 3분의2나 되는 넓은 지역입니다. 알다시피 이곳의 천연자원은 무진장이라 할만치 많습니다. 목재, 곡식, 석유, 석탄등우리나라가 필요로하는 자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미주이민이다하면 미국의 로스·엔제리스나 샌프란시스코등을 생각하는 모양인데 인제 뒤늦게 그런곳에와서 뭘 하자는 겁니까? 캐나다 그것도 중서부지역에 눈을 돌릴때가 왔읍니다. 경제전략으로 볼때 이곳의중요성이란 아무리 강조되어도 모자랍니다. 나는 대학은 정치외교과를 나왔읍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경제도 열심히 공부하여 맡은바소임을 다할 각오입니다. 교민중에 아직까지는 이곳에서 추문을 던진 어글리·코리안이 별로 나타나지않았고, 다들 각 분야에서열심히 일하며 훌륭한일꾼이 되고 있으니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라고대견스럽게 말하였다.

모 인쇄소에 근무하는이군의말도 들어보자. "회사에 결원이 생기면 캐나다인 사장이 찾아와서 사원을 새로 채용해야겠는데가 합적이면 한국사람을 추천해줄수 없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군의 성실근면성을 인정하고 한국인이면 무조건OK란 심사일것이다.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 시키려면 부동산 철새때는필요없고 이군과 같은 모범일꾼이 속속 왔으면 한다.

뱅쿠버의 원경

저 멀리의 산능선을 이곳 사람들은 이렇게 본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⑨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처칠에 주둔한 카나다군당국은 내가 살아남을수있을까 혹은 결국에 가서는 나를 구조하기 위해서달려와야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많은짐을 맡겼는데 약 100파운드나되는 조그만 발전기(여간해서는 중앙의 바렌으로 비행기가 가지않기 때문에 멀리 살고있는 에스키모들과의 연락용으로) 또 입으면 거북하고 부피가 큰 겨울용 군복 그리고 내가 뉴엘틴레이크에 갔을때 일기조건을 세밀하게조사하도록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보지만)하기위한 복잡한 관상용 기구등을 맡겼다. 사실 이런것들이 별로 소용이없는 것이었지만 겸손하다 보니까 모두 맡기는대로 받고 말았다. 이미 처칠에있는 허드슨베이 백화점에서 구입한 물건만해도 많은 분량이 되었다. 이들 구입품은 내가 뉴엘틴에 갔을때 그 젊은 사람을 만나게되지 못할가능성이 짙었으며, 이짐을나의 식량으로 대치해야할 경우로보아서 매우많은 분량이었다.

존은 이 불필요한 짐을 실는것을 도와주며 말하기를 다시 출기전에 나를 데리러 오기는 매우 힘들것이라고 했다. 그때는 얼음이 비행기가 내리기에 적합하게어는 늦은 12월 경이었으며 그때까지 식량이 떨어지면 굶어야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많은 분량의 밀가루, 돼지기름, 설탕, 차 베이킹파우더, 베이콘, 소금에절인 돼지고기 등사분의 일톤의 각종 음식을 준비했다. 결들여서 말린과일과 채소, 북극에서 듣기만해도 깜짝 놀랄만한한상자의 과일쥬스를 샀다. 내 짐은 거기서 끝나지않고그 전해 가을에 뉴엘틴에 살고있는 그 젊은 사람에게 보내졌어야 될 짐이 창고에서 썩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는 교통수단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과외로 500파운드나 되는 짐이더 첨가되었다. 북극의 교통수단은 대체로 위험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내가 갖다 주도록 모든것이 떠맞겨졌다. 마지막으로나의짐에 보태진 것은 법의 허가를받은 "과학용"이라고 표시가된 3갤론의 곡류에서뽑은 알콜로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다.

이 모든짐이 안손비행기에 실리자 부피가 큰 짐에 놀라는 빛으로 한번 훑터보고나서 존은 돌아서더니 엔진을 걸었다. 과중하게 짐을실은 비행기가 집에서 만든 이착륙용 스키를달고 호수로 미끄러져 앞으로달리자 곧 올라가면서 차가운 공기속으로 내 달았다. 그리고 처참하게 내동이쳐진 처칠위를 한바퀴 돌아 잉거브리트손씨가 우리를 향해 손을흔들어 이별을고하는것을 바라보았다.

비행기는 북쪽으로 기수를 돌려 얼어붙은 해안을 따라 올라갔다.

바다를 바라보니 얼어있었고 육지는 드문드문있던 나무도 점점 없어지며 비행기는 바다를 점점 멀리하면서 북쪽으로 방향을바꿔 바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안손비행기는 목적지를향해 굉음을내며 날고있고 쟈니는 무릎앞에지도를 펼쳐놓고 윈더리버를 콤패스로찾아내려고 그위를 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리위에 있는 콤패스는 바늘이 떨며 크게 왔다갔다했다.

왜냐하면 북극의 자장권에 들어오면 콤패스는 믿을수 없는 기계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우리는 해안선을 뒤로하면서 해상공졌고 눈이내리는 짙은 구름으로인해서 시야가 막혔기때문에 날리 항해상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것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목적지를 찾아내려는 노력이란 쉬운 노릇이 아니었다.

아무리 날아가도 끝없는 휜구름의 악몽뿐이었다. 온갖 형상으로덮인 단조로운 흰눈 때문에 낮에 계속되는 언덕, 호수 그리고강이있는 육지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살아있는것이란 전혀 없는것 같았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짐승들도모두 회게 색갈을 바뀌서 단지 눈위에 있는 그림자에 불과했기때문이다.

(계속)

가나안커텐상사

"이전개업"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저희 가나안 커텐상사를 많이 성원하여주신 덕분으로 많이 발전하여 하기장소로 이전 확장개업하게 되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민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읍니다

유 원 덕 올림

이전축하모임

장 소 : 2390 Lakeshore Blvd. W.

때 : 1981년6월13일(토) 오전12~6시

품 목 : 커텐. 베니숀 브라인드. 버티칼 브라인드. shabe, rug. 각종카바 레부 판매및 설치 안막장치

이력및학력 :

대광고 졸업
고려대 졸업
감리교 신학교 2년 수료
영락커텐상사 직영(서울)
홍익대 대학원 연구와정수료(섬유)
가나안커텐상사직영(서울)
카나다이민
Drape Shoppe회사근무
가나안커텐상사개업

영업장소 : 2390 LAKESHORE BLVD.

☎ : (B) 252-4857, (R) 252-6602

장티푸스接種 잇단副作用

安養女商·鐵岩中學生 412명發病

1명死亡·15명 入院中

高熱에 손발 뒤틀리고 마비

여름철전염병인 장티푸스를 예방하기위해 실시되고있는 예방접종이 잇따라 집단부작용을 일으켜 경기도 安養과 강원도 三陟郡 長省邑에서 4백12명이 발병,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9일밤 현재 입원하고있고 1백25명이 한때 입원하는 대규모 집단 약화사고가 발생했다. 9일 보사부는 예방접종 부작용사고가 잇따르자 사고현장으로 국립보건연구원및 국립의료원 역학조사팀을 긴급파견, 원인규명에 나서는한편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질때까지 현재 실시중인 예방접종을 잠정 중단토록 각 시·도에 긴급지시했다.

"原因규명때까지 中止" 保社部지시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4일 접종을받은 安養女商학생 3백86명가운데서 59명이 처음으로 집단부작용을 일으켜신한 열과함께 손발이뒤틀리는 마비증세를보인데이어 8일에는 강원三陟郡 長省邑鐵岩중학교에서 학생 1천30명이 접종을받은뒤 82명이 심한복통을일으킨끝에입원, 1명이 숨지는등 장티푸스 부작용이 확산되고있다.

보사부역학조사팀은 문제의 장티푸스주사약과 가검물을 수거, 보건연구원의 배양검사를 통해 원인을 밝혀내기로 했는데 보사부당국자는 「현지에서의 세균、내과학상의 판명은 11일까지 일단 끝나게되지만 배양검사에는 10일은 걸려야하므로 예방접종의 재개 여부는 그때 가서 할수있을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사부에 따르면 鐵岩중학교에서는 학생1천30명이 三陟보건소長省 지소근무 김옥순양(33·가족계획계몽 요원)등 3명의 간호보조원으로부터 주사를 맞은후 1학년 1백40명, 2학년1백43명、3학년70명등 모두 3백53명의 학생들이 부작용을 일으켰으며 이가운데 82명이입원, 1학년3반鄭은희양(14·鐵岩3里2班)이 9일상오 3시30분 숨졌다는것.

이들의 증세는▲머리가 아프고▲열이높으며▲열꾸리가 결리는 한편▲속이 메스껍고▲다리가떨려 몸을 가눌수없는것등으로 나타났다.

鐵岩중 학교측은 9일낮12시께 수업을 중단, 전교생을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이날하오 입원학생중 2명을제외한 나머지 학생은 모두 퇴원했다.

留意사항無視 注射 백신變質 가능성도

해설

安養여상、鐵岩중학교 학생들의 장티푸스 예방접종집단부작용사고는 1차로 접종시의 유의사항을 무시한 주사행위가 빚은것으로 그원인이 집약되고있다.

두학교모두 의사의 현장감독없이 간호보조원들이 학생들에게 백신을주사했다는것.

또 예방접종때 사용하는주사바늘은 원칙적으로 1회용을 사용해야하나 이들학교에서는 계속사용하는 일반병원용 철제바늘을 사용하고있었다. 이철제바늘은소독을전제로 사용해야하는데 鐵岩중의 경우 3명의 간호보조원이 2시간30분에걸쳐 1천30명을 한꺼번에 주사、주사바늘을 철저히소독후 사용하기가어려웠으리라 보여지고있다.

"接種사고 防止 감독 철저토록" 南總理지시

◇南總理

南悳祐국무총리는 9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요즘들어장티푸스 예방주사사고를 비롯해 각종안전사고및 대형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는 것은 일선공무원등 관계자들의 자세가 해이해 있는데 그원인이 있다고 지적, 공무원들의 기강확립과 소관업무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南총리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발생한 피고인脫走사건、한일은행 中谷洞지점 강도 미수사건、慶山열차사고를 예로들고 이같이 지시했다.

南총리는 또한창 가뭄극복작전을펴고있는 농번기에 정부의 각종행사를 피하도록하라고 지시했다.

비…비…비가 온다

서울 어제 2·8㎜ 예상降雨量 5~10㎜ 解渴엔 큰도움 못줘

기다리던 비가 방울만던지다 밭아 목타는 대지를 머욱 감질나게하고 있다.

9일 상오부터 전국적으로 찌푸린날씨는 곳에따라 빗방울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10일상오3시현재까지가장많이 온곳이 서울지역으로 2·8㎜、대관령 1·8㎜、全州·瑞山 1·3㎜、春川지방이 1·1㎜가 내렸을뿐이며 나머지지역은 0·1㎜~0·8㎜로 빗방울만 조금 뿌어지다만정도였다. 중앙관상대는 10일하오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으나 예상강우량은 5~10㎜밖에 안돼 해갈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보했다.

揚水裝備수리 4百개班급파 旱害對策본부

중앙한해대책본부는 9일 영호남 가뭄지역에 6개기관서 4백17개반 9백4명의양수장비 이동수리반(무료)을 가뭄현지에 파견했다.

25日降雨까지 總力

高建농수산부장관은 9일 가뭄지역 시장 군수에 공한을 보내고 이달25일께 강우가 예상된다는 중앙관상대의 예보에따라 각시군은 늦어도 이달말까지 1백% 모내기를 끝낸다는계획이다.

離任 글라이스틴 全대통령에 人事

全斗煥 대통령은 9일상오 청와대에서 글라이스틴 駐韓美대사의 離任예방을받고 환담했다.(사진)

이자리에는 盧信永 외무장관이 배석했다.

한편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도 이날상오 글라이스틴 駐韓 美대사부인의 예방을 받았다.

브래턴中將에 敍勳

全斗煥 대통령은 9일 상오 청와대에서 美육군 공병단장 조지프·K·브래턴중장을 접견하고 保國훈장 國仙章을 수여했다.

6·5提議 北傀、거부 美국무성관리밝혀

【워싱턴9日=曺淳煥특파원】 북한은 南北대화재개를 촉구한 全斗煥 대통령의 로동신문과 한비밀방송을통해 혹독히 비난하고 全대통령과 대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全대통령의 「6·5제의」를 거부했다고 한美국무성관리가 9일말했다.

레바논 內戰당사자 全面休戰 합의

【베이루트8日UPI=聯合】레바논사태해결을 위한 아랍연맹內 한위원회는 8일 모든 레바논內戰당사자들이 레바논 전역에 걸친 전면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宅地開發 예정지구 2차 지정내역

시 별	지구	위 치
釜 山	南山	東萊區南山洞一圓
水 原	九雲	水原市九雲洞 〃
安 養	石水	安養市石水洞 〃
〃	山本	軍浦邑山本里 〃
富 川	深谷	富川市深谷洞 〃
議政府	佳陵	佳陵洞 〃
江 陵	內谷	內谷洞 〃
〃	翕岩	翕岩洞 〃
束 草	校洞	校洞 〃
東 海	墨湖	墨湖洞 〃
濟 州	鳳鳴	鳳鳴洞 〃
〃	福台	福台洞 〃
忠 州	城內	城內洞 〃
〃	忠義	忠義洞·金陵洞 〃
堤 川	靑田	靑田洞 〃
大 田	龍雲	龍雲洞 〃
〃	文化	文化洞 〃
全 州	孝子	孝子洞·三川洞 〃
裡 里	永登	永登洞 〃
光 州	念珠	西區花亭洞 〃
麗 水	文水	文化·麗西洞 〃
〃	麗西	麗西洞 〃
木 浦	下塘	龍塘洞 〃
大 邱	安心	安心邑栗下洞 〃
〃	月背	月背面辰泉洞 〃
浦 項	生旨	生旨洞 〃
〃	斗湖	斗湖洞 〃
〃	環汝	環汝洞 〃
金 泉	富谷	富谷洞 〃
安 東	安奇	安奇洞 〃
蔚 山	福山	福山洞 〃

전국 31개地域 宅地개발指定 2次로 3백46만坪

건설부는 9일하오 주택정책심의회를 열고 釜山市東萊區南山洞일원등 전국 22개도시 31개지역 3백46만5천평을 제2차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이지역은 대부분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며 농지도 84만3천평이 포함되어있다.

지정된 이지역은 81년부터 오는83년까지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하여 택지로 개발하게된다.

이로써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부가지정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지난 4월14일 1차로 지정한 4백60만1천평을 포함, 도합 8백6만7천평에 이른다.

건설부는 오는 86년까지의 공공주택건설계획에따라 총 4천2백25만평의 택지를 새로 개발한 계획이나 올해는 8백6만7천평에 대해서만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나머지 추가분은 내년부터 다시 지정할 계획이다.

日거점 間諜團6명 檢擧

記事11面

脫走주범 李相勳자수

5일만에 大檢에 共犯 내연의妻 2명도

★관련기사 10·11면

檢察廳 守衛들이 막자 '電話라도 좀…'

서울지법 南部지원 법정탈주사건의주범李相勳(29·전과7범·서울江西區木洞40의3)이 탈주 만4일만인 9일하오4시50분 대검중앙수사부3과장 金道彦부장검사실로 자수했다.

또 李의탈주공범 鄭殷相과 馬弘植의내연의 처 文仁子씨(24)와 徐와來씨(26)도 9일밤 11시10분께 서울지검南部지청에 자수,탈주극전모가 밝혀지고있으며 鄭와馬만 계속도피중인데 이들도 10일중으로는 자수할것으로보인다.

李는 이날 하오4시45분께 서울中區貞洞 대검찰청수위실에 나타나「대검 중앙수사부3과장이 누구냐」고 물은뒤「상의할 문제가있으니 면회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수위들이「주민등록증이없으면 면회가안된다」고 사절하자 李는「중요한문제가 있으니 꼭 대화를 해야겠다」면서 전화라도 걸어줄것을 간청, 수위1명이 12층에 있는 3과장실로 연락하자「李相勳인데 자수하겠다」고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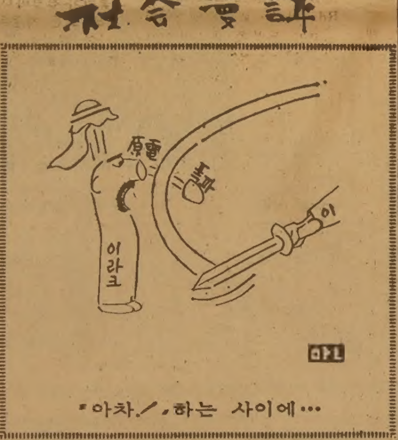
李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수위실을통해 검찰청 건물안으로 들어섰으며 그순간 金道彦과장이 직접내려와 李를 얼싸안듯 붙들고 연행했다.

李는검찰에서『탈주직후공범인 馬弘植과 鄭殷相, 馬와 鄭의내연의처등 5명이함께 다녔으며 낮에는 서울시내변두리극장에 들어가 경찰의눈을 피했고 밤에는 부부를가장, 여관을 전전했다』고 밝혔다。한편 李의자수소식을 고 이날밤 늦게자수한文씨와徐씨등 두여인들은 이날상오佛光극장에서 주범 李와헤어진뒤 鄭과馬와 함께 하오8시 50분께 각각 택시로 짝을지어 헤어졌다가 다시鄭과馬와고도 헤어지고 검찰에찾아와 자수했다.

◇초췌한 모습의 李相勳

자수한 탈주주범 李相勳。『결국잡힐것같아 내발로왔다』면서 5일 동안 숨어다니기에 지친듯 초췌했고 굳은 표정이었다。

社會漫評



『아차!』하는 사이에…

地平線

제2차 세계대전때의 일이다. 지루한전쟁통에 순직한 일들이 많았으나 별로눈에 띄지않으면서 무시무시하고도 아찔한사건이 벌어졌다.▼첫번째 사건은 프랑스에서 생겼다. 1940년5월16일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했을때 두사람의과학자가 퀴리연구소에서 남쪽으로 탈출했다. 두사람은 185㎏의 물이 들어간 컨테이너를 封印한채 남았다. 보르도항구에서 이짐은 영국배에 실렸는데 배속에서도 컨테이너에는 뗏목을 붙였다. 독일군 잠수함이 배를 격침시켜도 이물이 들어간 컨테이너만은 가라앉지 않게하기위해서였다. 이배는 무사히 영국에 도착했다.▼두번째 사건은 독일군 점령하의 덴마크에서 벌어졌다. 세계적으로유명한 물리학자의 한사람인 니르스·보아가 스웨덴으로 망명 한때 보물단지처럼 맥주병을 한병 들고 갔다. 그러나 이병에는 맥주대신 물이 들어있었다. 세번째사건은 노르웨이의 작은 마을 류칸에 영국군 공정부대가 낙하한 일이다. 이작전의 목적은 오랫동안極秘에붙여져있었으나 전후에 이작전이 류칸에있던 4백명의 물을 폭발시키기위한 것임이 드러났다.▼어떤물이기에 이처럼 물이 사건의 핵심이되었을까. 바로 이물이 重水였다. 이重水가 原爆에 없어서는 안될 중한 물질이다. 이重水가 나치의손에 들어가지않도록 연합국이 손을 썼던것이다. 이重水—죽음의 물은 오늘날 原子爐에도 응용되지만 무서운 原爆을 만들수없기때문에 세계각국이 核노이로제에 걸려있다.▼이번에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이라크원자로를 기습 폭격한 것도 말하자면 중동에서의核경쟁에서 누가 패권을잡느냐의 싸움인것이다. 이스라엘은 지난70년대말까지 10~20基의 核무기를개발,중동에서核개발에 가장 앞선나라다. 이스라엘주변 회교국가로서는 파키스탄이 核개발에성공했고 이라크가 뒤따르고 있었다。바그다드 근교 타무즈의 오시라크 원자로단지에 대한 일요일의 제2엔테베기습사건은 가뜩이나 악화일로에 있는 중동사태에 불을지른 결과를 가져왔다.▼이스라엘이 사용한 공군기가 미국이 공급한 F16전폭기였다는것도 미묘한 문제를 일으켰다。 프랑스가 원자로 건설에 참여했기때문에 사태를 더 얽히게하고 있다. 방사능이 유출됐느냐 하는것도 논란되고있다。이스라엘 베긴수상은 이번기습이 어디까지나 自衛行爲이며 세계각국의여론을 두려워 안한다고 말하고있지만 국제적으로 어떻게 사태가 수습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核武器를 둘러싼국제적인 암투가 이토록 심각한것은 原子爐를 갖고있는 우리로서도 다시 한번 달은것을 생각하게 된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결혼·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야몬드
전 당
은 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78
은 : 온스당
US 10.8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424－2599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교포
사회의
등불
한국일보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2361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주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R.M.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Einch Ave. E. F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VISA 또는 MASTER CHARGE든
CASH이상 환영

IATA
월부적금제 실시
(푼돈 모아 목돈으로 여행 가능)
●서울단체 매일출발 CPA, KAL, JAL
여름철은 붐비니 미리왕복예약하십시오.
●이민및 방문초청상담, 초청장 작성
●동남아 각처 단체요금
●월부및 각종 크레딧 카드취급
●저렴한 국내선 SKYBUS및 SEAT SALE
※ 모국방문산업시찰단모집 : 9월27일 출발
(3박4일 산업시찰 포함)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김창범 536-2155·2156 (R) 429-7580

개업
꽃 집
Jane Park Garden
*생화, 조화, Plants, Gifts, 꽃바구니, 화병등 꽃에 관한 모든물품 대량구비.
*모든 축하 꽃꽂이나, 생일, 결혼, 장례꽃 전문.
*각처 주문 배달.
Eglinton W. / Jane St. / Alliance / St. Clair W.
Jane Park Plaza
875 Jane St.
Toronto, Ont.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한국産業의 뿌리 <2>

—제2의 經濟도약…重化學工業에 달렸다

投資조정후 突破口 모색

稼動率저하 赤字누증에 對策을

◇工業化率比較(1977年) (단위:%)

	韓國	臺灣	日本	西獨
工業化率	27·6	30·4	49·1	48·7
重化學工業化率	24·4	25·7	52·6	47·1
工産品 輸出構成比	85·6	85·3	97·2	95·0
重化學製品 輸出構成比	28·7	29·3	79·3	99·0

◇重化學産業의 稼動率 (단위:%)

區分	部門	78·12	79·12	80·12
製造業全體		88	82	73
鐵鋼	製鋼	89	81	81
	鋼管	78	52	55
機械	一般機械	48	44	35
自動車	母企業體	89	55	32
	部品業體	82	58	43
造船	中小型造船所	61	48	42
電子	電子	95	74	62
	電氣	63	60	40
化學	에틸렌	99	119	73
防産	방위산업체	60	54	48

現住所

先進과 中進·中進과 後進을 식별하는 기준은 보는 눈(眼)에 따라 또는 재는 척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그러나 지난 2백년간에 걸친 자본주의 경제발전과정은 한가지 분명한 경험적법칙을 남겨놓았다. 工業化가 이루어지고있는 나라는 中進國(또는 開發途上國)으로 분류되고 공업화가 진척되어 공업구조가 다시 고도화(중화학공업화)된 나라는 어김없이 선진국 대접을 받는다.

重化學工業化가 완성된 시기나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다. 西獨은 50년대초반, 日本은 60년대초반, 그리고 臺灣은 70년대초반부터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었다.

다만 2차대전이전부터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당당한 工業國으로 행세할수있었던 西獨이나 日本은 旣往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단시일내에 重化學工業化를 완수한데 대해 前代未踏의 세계를 개척하고있는 臺灣은 아직껏 착실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고있다. (別表1)

우리나라도 臺灣과 비슷한 시기(73년)에 重化學工業化정책이 추진되기시작했다.

그러나 속도와 내용은 크게 다르다. 臺灣은 꾸준히 단계적으로 중화학공업화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우리나라는 과열과 냉각이되풀이되고있는 가운데 모든重化學산업을 동시에 일으키려하고있다.

정부가 重化學工業化 정책을 선언한것은 73년1월의일이다. 때마침 세계경제를 엄습한 자원파동과 그에따른경기침체때문에 중화학 정책은 업계의 호응을 얻지못하고지지부진했다. 그러나 76년부터일기시작한 中東붐에 실려 重化學투자는 순식간에 과열현상을 빚어냈다. 정부의重化學개발의욕을 담은 제4차 5개년계획(77~81년)은계획기간동안 重化學對經工業의 투자비율을 60對40으로하고 重化學부문에 2조8천9백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첫3년동안(77~79년)의 중화학투자는 의욕에 넘친계획을 훨씬 앞질러 79년말현재 2조8천68억원(운영자금제외)을 투자, 81년목표를 2년이나 앞당겨 달성해버렸다. 또 중화학대형공사의 투자실적은 78.9대21.1로 중화학 절대우위체제를 굳혀놓았다.

급작스런 과열은 당연한 결과로 엄청난 과잉중복투자를 자초했다. 가장많은 말썽을 불러일으킨 발전설비의 경우 現代洋行(현대중공業)이 제시한 연간 생산능력 50만㎾4기(총2백만㎾)를 비롯 大宇 50만㎾3기, 三星60만㎾1기, 現代重工業 60만㎾2기(水力·火力)및 1백20만㎾5기(原子力), 漢公 30만㎾1기, 江原産業45만㎾, 曉星15만㎾등 도합1천2백90만㎾에 달하는 건설계획이 제시되었다. 이에대해 80년대초반까지의 국내수요는 연 1백만㎾에 불과하고 80년대 중반에가야 2백만㎾에 달한다. 또 당시 발전설비제작시설을 갖추었거나 건설중인업체는 三星重工業의 보일러工場과 現代洋行의 일관공장뿐이었다. 나머지는 책상머리에서 마련된 페이퍼·플랜에 불과했다.

비단 발전설비뿐만 아니라 自動車산업은 연산 2백60만대규모의 확장계획이 제시됐었고 이밖에 製鐵설비, 化學설비, 시멘트설비, 공해방지설비, 광산설비, 건설용장비등도 엄청난 과잉투자가 이루어졌다.

이에따라 79년중 중화학대경공업의 생산실적은 56.9對43.1로 바뀌어 오는 86년에나 갖추게될 생산력구조를 7년앞당겨 실현하였으며 그중에 亞鉛錠, 鐵鋼板, 에틸렌, 저밀도폴리에틸렌, 고밀도폴리에틸렌, TPA, SBR, 아크릴로니트릴, EG, 시멘트, 板유리, 신문용지등은 79년말로서 81년목표를 초과달성했다.

중화학과 같은 궤도를 달리는 電力부문도 과잉투자되었음이 분명하다. 4차계획은 전력부문에 무려 2조4천억원의 투자를 계상해놓았는데 79년말의 투자실적은 1조9천억원, 5개년투자예정액의 80%를 3년동안 쏟아놓았다. 더구나 지난3년간 신규발전소건설발주는 적정치의 3배나 초과하였는데 이에 따라 많은 전력시설이 유휴화, 최근의 전력예비율은 40%내외로서 적정예비율15%를 25%포인트나 초과하고있다. 전력예비율이 1%늘어나면 투하금리부담만도 1천만원이 넘는다고. 최근예비율을 기준으로하면 노는시설의 금리부담만도하루 2억5천만원이 넘는다. 그런속에서도 韓電이 막대한이익을 내고있는 것은 電力料金이 터무니없이 비싸기때문. 전력소비자가韓電부실경영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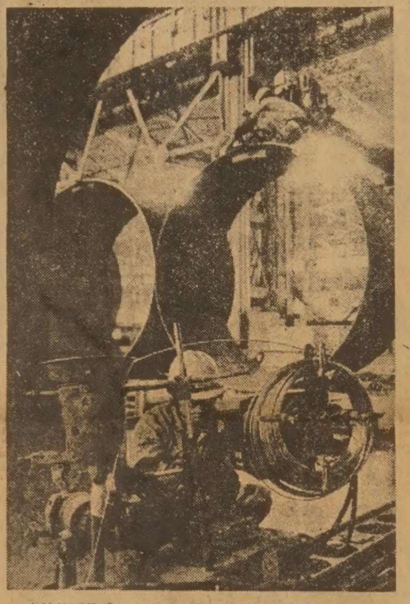
그러나 과잉투자는 금방한계를 드러냈다. 景氣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자 과열은 금방 냉각되어 버렸다. 과잉투자는 자금부족→재무구조악화→경쟁력약화로 이어져 마침내는 국민경제에 무거운 부담이 되어 버렸다.

정부는 부담을 덜기 위해 여러차례에 걸쳐 重化學투자조정을 시도해 보았으나 투자조정으로 난제를 풀수는없다. 신규투자는 올스톱 되고 수출수요마저 격감했다. 이에따라 중공업부문의 가동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赤字가 누적되고 있다. (別表2)

지난 80년중 重化學은 과거 3년간 쌓아올린 실적을 잠식하며 허송세월했다. 과잉투자한 업종일수록 심한 멀미를 앓았다. 그러나 重化學개발은 포기할수도없고 또 포기해서도안된다. 重化學의 개발은 근대화의 途程이요 경제발전 전단계에서 반드시이수해야할 필수과정이다.

우리의 중화학개발 정책이 방향설정이 잘못되었고 속도조절에 실패했음이 분명하다. 이미 벌여놓은투자사업을 착실하게 정리해가며 새로운 도약을모색할때이다.

【朴炳潤기자】



◇技能工들이 소형보일러를 제작하고있다. 【三星重工業에서 金庚泰기자찍음】

北傀 玄峻極등 7명 日서 入國허용

「양다리外交」 드러내

아사히新聞 11일께, 漁協연장논의 구실

【東京9日=聯】北傀對外文化연락협회 부회장 玄峻極을 단장으로하는 거물급 정치인 4명과 수행원3명등 7명이 일본의회내 親北괴단체인 日朝友好촉진의원연맹(회장 구노·추우지=久野忠治)의 초청으로 빠르면 오는11일께 일본을 방문, 19일까지 머물면서 日·北傀간의 친선을 위한 현안문제를 논의하게될것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9일 보도했다.

日정부가 북괴의 거물급정치대표단의 입국을 인정하기로 한것은 ◆북괴의원단이지난77년5월에도 日朝의원연맹의 초청으로 訪日한 선례가 있고◆입국목적이 우호친선인만큼 일본내에서의 정치활동을 하지않으리라는것을 전제로 한것이라고 이신문은 전했다. 북괴대표단은 日朝의원연맹과의 회담에서 내년도에 기한이끝나는 日·北傀민간어업협정의 연장교섭문제를 논의키로 예정돼있으나 77년 訪日당시와같이 한반도정세에 관해서도 의견교환을 하게될것이라고 이신문은 보도했다.

북괴대표단의 이번 訪日은 지난3월 日朝의원연맹이 북괴측에 제의, 구노회장이 지난달19일 대리인으로서 입국신청을 日정부에 낸것으로 알려졌다.

북괴대표단의 입국문제에 비교적 신중한 자세를 취해온 일본정부가 제5공화국출범후 韓日간의 정치적 대화가 정상화되기전에 이들에대한 입국허가를 하기로 한것은 한국정부의 커다란 반발을 살것으로 보인다.

韓·英등27議員協 會長團 구성매듭

국회는 9일하오 韓·英·뉴질랜드등 27개의원친선협회회장단을 구성하고각 협회별 회원구성을마쳤다.

이날 선정된 각친선협회별 회장은 다음과같다.

▲韓·自由中國=宋志英(民正)▲韓·印尼=鄭元民(〃)▲韓·이란=韓英洙(民韓)▲韓·濠洲=朴定洙(民正)▲韓·뉴질랜드=鄭泰燁(民正)▲韓·印度=李萬燮(국민)▲韓·이집트=李相佑(民韓)▲韓·스페인=尹錫民(국민)▲韓·이탈리아=金基喆(국민)▲韓·벨기에=金宗鎬(民正)▲韓·프랑스=高在淸(民韓)▲韓·자이레=崔洛喆(民正)▲韓·英國=李鍾贊(民正)▲韓·캐나다=李鍾玩(民正)▲韓·코트디브와르=金然主(民韓)▲韓·오스트리아=金殷夏(民正)▲韓·西獨=王相殷(民韓)▲韓·네덜란드=蔡汶植(民正)▲韓·가봉=李亢雨(〃)▲韓·덴마크=申哲均(〃)▲韓·노르웨이=李珍雨(국민)▲韓·스웨덴=高貞勳(民正)▲韓·터키=鄭在哲(民社)▲韓·브라질=李東鎭(국민)▲韓·콜롬비아=金元基(民韓)▲韓·코스타리카=李炳九(民韓)▲韓·멕시코=崔正雄(民正)

行政高試 4개부문별 科目내정

一般行政·財經·敎育·社會

총무처는 단일적으로 시행해온 行政高等考試를 일반행정, 財經, 敎育, 社會등 4개분야로 세분하고 시험과목도 대학교육과정과 연결되도록 개편하는 내용의 行政高試과목개편안을 마련, 9일 발표했다.

총무처는 이개편시안을 곧 확정, 내년도 시험때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시안에의하면 객관식1차시험과목을 현재의 4과목에서 공통과목4, 분야별 전

釜山등 7개市道에 副市長·副知事2명

국무회의議決

국무회의는 9일하오 인구 2백만이상인 부산시와 경기, 충남·전남북, 경남·북등 7개시·도에 부시장과 부지사 1명씩을 더두고, 치안본부에 제4부(정보1·2·3·대공)를 신설, 현재의 3부에는 수사1·2과외 감식과를두며 치안감사담당관(경무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大田직할시에 3실11국, 1담당관실을 신치하고 仁川직할시에는 3실8국 1담당관실을 두도록했다. 이에따라 치안본부에는 치안감자리 1개, 경무관5개, 총경5개가 늘게됐다.

新築국민주택엔 規格窓門

건설부 3백11개生産업체 등록

건설부는 9일 앞으로 건설되는 국민주택에는 등록업체가 생산하는 규격창문만을 사용토록 국민주택건설사업주체에 지시했다.

이같은 규격창문사용의무화조치는 각종 조잡한 창문의 제작을 막는한편 규격미달자재의 사용에 따른 하자발생을 없애기 위한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1월5일부터 3월31일까지 전국 창문생산업체의 등록을실시, 철재·목재·콘크리트·알루미늄·합성수지·철재및알루미늄·목재및 알루미늄등을 재료로한 창문을 생산하는 3백11개업체의등록을받았다.

株價 연일 急騰勢

"과열되면 規制한다" 경고 불구

9일 서울證市에서 종합주가지수는 前日보다 3.7포인트가 올라 올들어 최고기록인 1백85.0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79년4월19일의 1백86.7이래 최고수준을 기록한것이다.

證市가 과열되면 규제조치를 취하겠다는 시장당국의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주들어 주가가 연일 급등세를보이고있다.

거래가 이루어진 2백73개종목중 한국전자 한국베아링 경향건설등 26개종목이 상종가로 오른것을 비롯 1백90개종목이 큰폭으로 오르고내림은 41개종목에 그쳤다.

특히 石油化學 전기 기계 건설주 무역업종이 큰폭으로 장세를 주도했다.

시장당국은 ▲하반기 본격적인 경기회복기대▲건설주에대한 강한 매기의분산▲원유가의 인하등에 힘입어 이처럼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原油價 4弗인하 나이지리아

【뉴욕8日外電=聯】아프리카의 高油價산유국인 나이지리아가 일부 원유가격을 배럴당 4달러 인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紙가 8일 보도했다.

本社주최 15일까지

제3회 국제工作 機械展

美·西獨등 7국42업체참가

제3회國際工作機械展示會(KIMT '81)가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綜合展示場에서 열린다. 한국일보주최, 商工部, 中小企協中央會, 韓國工作機械工業協會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을 비롯 日本, 西獨, 美國, 이탈리아, 스위스, 臺灣등 7개국에서 42개업체가 참가하게 되는데 전시회를 통해 해외선진국기계와의 비교, 기술정보교류, 통상증진을 통해 工作기계공업의 국제경쟁력 배양에 이바지할수 있다.

社說

核家族시대 老人의자리

—停年·일터·의료·稅制등 다각對策을

『늙는다는것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달린문제』라고 챠·보트위니이라는 심리학자는 말하고있다. 심지어 운동선수가 나이를 먹는것도 육체적인만큼 심리적인 문제라고 그는 말하고있다.

존경받는 사회의 원로요, 집안의 어른이었던 지난날의 노인이 이제 위엄과 자상을 잃게된것도 그런 입장에서 볼수 있을지 모른다.

사람에 따라 「늙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는 수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에 걸쳐 60세이상의 노인1천4백27명을 대상으로 20일동안 조사한 결과 (한국일보9일자 1면보도)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변동을 또한번 확인해주고있다.

노인들의 가장 큰걱정거리는 건강과 돈이다. 61.8%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있다는데서도 심리학적현상이전의 각박한 현실을 알수있다.

78%가 넘는 노인들이 자녀의 보조를 받고있으면서도 이들의 궁색한 형편은 해결되지않는 것이다. 노인이 집안의 어른이었던 시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현상이다.

이런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지금우리사회의 노인들은 지난날의 인생의 보금자리인 핏줄의 얽힘을 되돌아보고 있다는데에 커다란 특징이 있다.

83%이상이 자식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고, 49.4%는 자녀의 봉양을바라고있다.

이들이 행복했던때는 자식을 기를때였고, 나이들어서는 손주가 태어났을때를 들고있다.

대가족의 품안에서 태어났던 이들이 지난날의 「美風」을 동경하고, 지나간 생활양식을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급격한 핵가족화시대에 집안 어른으로서의 위엄있는 자리를 잃었을뿐 아니라, 그에 따른 모든 사회적역할을 잃어버린 노인의 고뇌의 시작이다.

70%는 텔리비전이 벗이고, 라디오를 즐기는 노인도 52%가 넘는다.

남자의 경우 42.6%가 일자리를 원하는것도 그70%는 「돈」이 아쉬워서라지만 또한 「참여」와 활동 자체에 뜻이 있다는것도 부인할 수 없다.

서울같은 대도시의 노인들은 대부분이 일자리를 원하고있다는 것은 지난4월 서울시당국의 조사에서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은 [illegible] 간단한 일거리로 한달에 10만원까지의 수입을 바라고 있다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을 지탱해 주던 대가족의 품에서 태어나, 이제 핵가족화의 물결에 휩쓸린 노인들의 각박한 현실에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우리의 현실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서 까마득한 低고용상태이지만 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년제도는 새로운 사회환경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있다.

정년의 연장은 그만큼 기업에 대한 종업원의 일체감을 강화하고, 따라서 생산성을 올려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서울九老구에 있는 한 기업에서 정년을 없앤뒤 작업능률이 올랐다는 보도는 이런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또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근로자들에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도 검토해볼직하다.

의료보험이 아직은 저소득층에 미치지 못하고있다는 모순이 있긴하지만, 노인에대한 의료보험의 서비스를 확대하는것도 바람직스럽다.

지하철·공원등 공공시설의 무료서비스는 당장 시작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늙는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달린 문제」라는 말을 다시한번 생각해보는것도 좋다.

설 자리를 잃은 노인 스스로 설 자리를 창조하는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위엄과 보람을 대도시의 공간에서 어떻게 재현할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노인문화를 어떻게 창조할것인가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人情·安全없는 遊園地

—溺死방관 束手無策 모두 問題다

「죽음의 순간」을 텔리비전 카메라가 잡았다. 漢江 뚝섬유원지에서 한 남자가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이다. (한국일보9일字7면) 일요일 (7일) 저녁 전파를 타고 안방까지 전해진 정경은 참 충격적이다. 그것은 바로 「非情의 現場」 이기도 했다.

KBS의 望遠카메라는 일요일 오후의 유원지人波를 스케치하고 있었다고 한다. 화면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보트놀이를 즐기는 광경이 보였다. 카메라가 一轉하는순간, 바로 뒤집힌 보트가 나타난다. 그앞에 浮沈하는 두 젊은 머리—.

한 사람은 서서히 헤엄쳐 기슭을 향한다. 다른 한 사람은 보트를 잡으려 안간힘 쓰다가 물살에 떠내려 간다. 한두번 머리가 솟구치더니, 얼마뒤 양손만 잠시 물위에 나왔다가 스르르 사라진다. 그 사이가 3분.

죽음이 엄습하는 순간, 화면에는 너덧척의 놀잇배가 잡혔다. 어느배도 달려드는 기색이없다. 이윽고 혼자 나온 친구. 그는 소주 3병을 함께 마시고 배를 탔다면서 빨리 헤엄쳐 나와 구조를 청하려 했다고 말한다. 또 한참만에야 잠수부들 있는 수상안전요원이 물속으로 뛰어든다.

아우성이 터졌을 江心속경인데, 화면으로 보는한 「죽음」 전의풍경이 그렇게 不毛한 수가 없다. 違和感을 느끼기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세상은 「바로 옆의 죽음」 마저 「無視」할정도로 非情해진것인가. 유원지라는 「管制된 空間」에서도 人命事故앞에 束手無策이란 말인가.

지금 세상이 각박하다는 말은 익히 듣고 느끼던 차이다. 모두가 앞을 다투느라 이웃 살필 겨를이 없다. 누구나가 이해를 따지느라 남을 돌볼 여유가 없다. 이웃은 없고, 모두가 「他人」이다.

그래서 옛 방한머니의 죽음이 며칠 스무날이 지나도록 알려지지를 않는다. 흔히 보는 풍경으로, 길거리에 어린이가 쓰러져도 곁들 멈추는 이를 보기가 어렵다. 버스안에 「小暴力」이 날뛰어도, 선뜻 나서는 이가 없다. 도둑이 들어도, 「불이야!」 소리치라가르치는 「利己」의 反面이 이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웃情」이 본디 그랬을 까닭은없을것이다. 연면히 이어온 隣保精神이 우리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라는것이 학자들의 지적이다. 개탄만 하지말고, 내가 그 現場에 있었으면 어떻게했을까—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마침 같은날 보트사고현장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광나루에서 두어린이가 익사했다.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함께 죽은것이다. 선뜻 뛰어든 未熟을 아쉬워하면서도, 그 순직한 마음씨가 가슴에 와 닿는다. 世事에 찌든 우리 心性의 바탕도 본디는 그렇지 않은가. 이웃을 향한 보살핌과 義俠은 새삼스러울 것없는 우리 本性의 回復인 것이다.

「죽음의 現場」을 보고나서 못내 안타까웠던 것은 그 자리에 安全要員이 나와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경찰의 말인즉 7월2일 例年의 「여름경찰서」를 설치할 예정으로 요원배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 형식과 日程에 얽매여, 완벽한 안전대책의 마련없이, 강변유원지를 개장시키는 神經은 이해할수가 없다. 그런 틈에서 지난 일요일 하루사이 13명이나 익사자가 생긴 것이다.

경찰통계를 보면, 작년「여름경찰서」는 뚝섬에서만 1천1백15명을 구조, 실제 익사자는 10명뿐이었다 한다. 이 두숫자는 「管理된 空間」의 安全은 거의 완벽할 수가 있으며, 많은 물놀이 시민들의 水上安全意識이 엉망이란 증거다. 한 여름을 앞두고 당국의 안전시책이 완벽하기를 바라며 시민들 스스로의 「몸조심」이 빈틈없기를 당부한다. 적어도 술먹고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상식은 지켜져야 하고, 술꾼에게 배를 빌려주지 않는 정도의 규제는 있어야 한다.

끝으로 지적할 것은 78년 큰 가뭄뒤 익사사고가 많았다는 前例다. 물찾기 웅덩이가 전국에 8만여곳이나 생겨, 익사자가 많았던 사실을 잊지말아야 할것이다. 가뭄속에 있단 익사사고 豫報를 들으며, 너나 할것없이, 올 여름철 安全에 소홀함 없기를 바란다.

政局往來

◆3府테니스대회 無期연기

南悳祐국무총리는 9일하오 국무회의에서 水利安全畓비율, 국도포장률등 정부의 각종통계에 정확성이나 一貫性이 결여돼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國政의 중요한 指標에 관계되는 통계는 국무회의에 보고해서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南총리는 『대통령께서 이미 지적했지만 통계의 정확도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며 『통계가 바뀌어질수있는 경우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수있게 충분히 설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南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농번기를 피해 정부행사를 가질것등 이례적으로 많은 지시를 하면서 통계의 권위를 되찾아야한다고 특히 강조.

한편 오는14일로 예정했던 입법·행정·사법 3府친선테니스대회도 가뭄극복에 힘쓰고있는 관계자와 농민들의 노고를 생각해 무기연기.

◆총무마다 개별접촉, 다른카드

李鍾贊民正黨원내총무는 9일상오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民韓黨의 高在淸총무와 국민당의 李成一부총무를 각각 별도로 만나 국회운영에 관해 협의.

李총무는 高총무의 常委소집요구에 대해 『常委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으나 짜임새있게 운영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자세를 강조.

李東鎭총무가 해외여행을 떠나버린 국민당은 李成一부총무가 『7월15일께 임시국회를 열자』고 나섰다. 이날 李鍾贊총무는 『구체적인 것은 7월에 들어가서 협의하자』고 즉석답변을 유보.

이날의 연쇄접촉은 民韓黨이 常委소집을 요구한 반면 국민당은 임시국회날짜를 들고 나오는 등 저마다 다른카드를 제시, 국회운영을 두고 野黨끼리도 서로 손발을 맞추지 않아 총무회담자체의 운영에 混線.

총무회담…野黨끼리 손발안맞아 混線

◆黨內外사정으로 해외여행못해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정부와 당의 수뇌회담 계획은 아직 民正黨에 정식통고되지 않은듯.

9일상오 열린 民正黨의 간부회의에서 [illegible] 보도를 보고받았다고 말했고 [illegible] 사무총장도 『정부측에 알아보아야겠다』고 初聞임을 示唆.

李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民韓黨의 柳致松총재가 해외여행을 떠나기전에 내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전하면서 『정부측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면 구태여 내가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反問.

李대표는 또 해외시찰을 떠날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학원사태도 있고 지구당정비, 당원훈련등 당내外문제가 있어 아직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柳총재, 5個國 巡訪외교

오는20일 海外여행에 나설 柳致松民韓黨총재는 3週예정으로 北美와 中南美 5개국을 巡訪, 각국 정부지도자와 의회지도자및 [illegible] 만나 의원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海外동포들과도 폭넓은 접촉을 가질계획.

柳총재의 이번 巡訪은 지난 1백7회 임시국회가 끝난직후 5월 [illegible] 許燉九의원의 교섭으로 [illegible] 문화센터와 세미나연사로 초청돼 「정치권력의 정통성과 한국민주주의의 장래」라는 제목으로 연설할계획이었으나 때마침 [illegible] 확대되었다고.

이에따라 民正黨 高在淸총무및 朴浚鎬국회사무총장과 [illegible] 예산으로 충당키로했고 [illegible] 國會의전과 직원등 3명으로 결정.

KYOTO JAPANESE RESTAURANT
신장개업, 다양한 일본의 정통음식
템뿌라, 스시, 스끼야끼.
예약은 755—3010
영업시간 : 화~금 점심 12~2 : 30,
저녁 5~10 : 00
토~일 5~10 : 00(월요일 휴업)
주 소 : 1067 Midland Ave. Scarboro North of Eglington(오리올플라자내 무료 주차장)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863—9519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동부 : 255 MORNINGSIDE AV. 282—2820
●서부 :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A. E. LEPAGE 부동산
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A. E. LePAGE
각종주택 투자관리
각종점포 매매알선
대지및 상가 대출안내
1174 ALBION RD. at ISLINGTON
B) 741—9170, R) 851—4717
DOUGI WOO 우 덕 이

서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 겸용
APPLE II PLUS 48K
Free RF Modulator
Free Programming 강좌
•PAYROLL및 INVENTORY PROGRAM설치
3025 Cedarglen Gate Unit 42
Mississauga, Ont. L5C 2V7
☎ : 275—0702 오 영 림

거 구 장
—특 별 메 뉴—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밤1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PENDEX OFFICE PRODUCTS LTD.
Business Machines Stationery & Office
전자 CASH REGISTER할인판매
*기타취급품목
●각종 CABINET책상, ●사무용 학생용 타자기,
●각종 종이 테이프
FREE DEMONSTRATION 김 성 수
1436 QUEEN ST. WEST
☎ : 532—0111, 259—5820(R)

中東에 불어닥친 核경쟁

이라크의 核개발 現況

시리아를 겨냥했던 劍으로 이스라엘은 돌연이라크의 허를 찔렀다.

베긴 이스라엘수상은 8일 이라크의 오시라크原子爐폭격사실을 발표하면서 『오는 7월, 늦어도 9월께 완전 가동에 들어가는 오시라크 原子爐는 2차대전말기 일본 히로시마에투하된 원폭규모의 핵탄을생산할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긴의 설명을 빌지않더라도 이라크는 조만간 核보유국이 됐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이對抗 原爆생산계획說

佛서 농축우라늄 이미 넘겨받아

이라크는 이미 지난 78년에 이스라엘의 원폭생산에 대한 年1個씩의 원자탄 생산계획을 수립해놓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78년10월 쿠웨이트 일간시아사紙 보도). 작년 여름에는 프랑스로부터 핵무기제조가 가능한 10~15kg의 고농축우라늄을 넘겨받았다. 영국의 권위있는 국제핵전략문제연구소(IISS)도 최근전략연구보고서에서 『오시라크原子爐는 핵폭탄제조가 가능한 90%이상의 농축우라늄235를 연료로 사용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라크의 핵개발이 극히 우려할만한것이라고도 밝혔었다.

이스라엘은 이미 10~20개의 핵폭탄을 지난 70년대에 제조 비축해놓고 있다고 알려지고있다. 그렇지만 적대관계의 아랍국가가 단1개의 핵이라도 보유한다면 이스라엘에게 공포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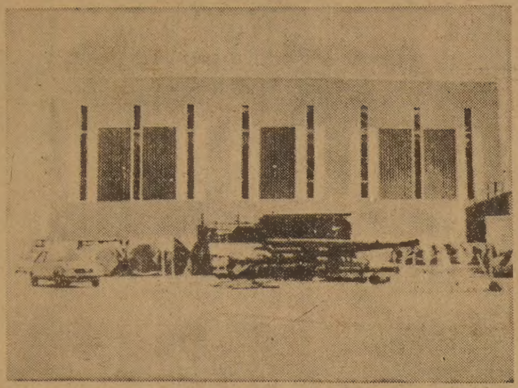
이같은 이스라엘의 공포가 이라크의 오시라크原子爐폭파로 나타난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이 당장對抗할 敵은 시리아였다. 그렇지만 시리아는 난적이다. 시리아와의 전쟁은 승부를 확신할 처지가 못되는 것이었다.

80년9월30일 이란과의 전쟁중에도 오시라크원자로 건설현장은 폭격을 당했었다.

당시 바그다드에는 폭격에 참가한 비행기가 팬텀機였다는 목격자의 말과 함께 이스라엘기에의한 폭격일지 모른다는 소문이 크게나돌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물론 이란도 폭격사실을부인했다.

오시라크원자로의 파괴로 이라크의 核개발은 적어도 2년반내지 3년은 후퇴했다. 【崔相鎬기자】



◇이라크에 核原料공급하는 佛會社 7일 이스라엘폭격기에 의해 파괴된이라크의 오시라크원자로에 원료를 공급하는 프랑스의 라·세인·쉬르·메르공장모습。 【라·세인·쉬르·메르8日UPI聯=特】

核時代돌입한 이스라엘

核선두走者…10~20基보유

回教圈의 1發이라도 큰恐怖感

【텔아비브8日UPI聯=特】中東에서 核무기문제에 관한한 이스라엘이 가장 앞서있다는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한다. 회교권국가에서는 파키스탄이 선두주자이다. 이스라엘은 70년대말까지 10~20개의 핵무기를 제조,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핵개발정책은 안개에 싸인채 애매모호하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核개발에있어 中東에서 가장 앞서있는데에는 이론의 여지가없다』고 텔아비브대학 전략문제연구소의 사이·펠만연구원이 런던의 전략문제연구소에 기고한바있다. 그는 회교국가중 파키스탄이 회교권최초의 핵무장국가가 될것이며 아랍국가중에서는 이라크가 최초로 핵무기를 보유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의 정보전문가들은 『이번 原電被爆으로 이라크 核개발계획이 2년반내지 3년 후퇴하게됐으며 이로인해 파키스탄은핵무기개발의 선두주자가됐다』고 분석했다.

또다른 정보소식통은 파키스탄이 앞으로 1년내지 1년반이내에 핵폭탄 실험을 할것으로 내다봤다.

펠만씨는『파키스탄이 회교권국가중 최초의 핵보유국이된다면 아랍권에서는 이라크가 최초의 핵보유국이 될것이다』라고 지난달의 기고에서 밝힌바었다.

그런데 일요일 이스라엘공군의 이라크 原電폭격으로 모든상황은 뒤바뀌게되었다.

유발·니만 이스라엘원자에너지위원회 前위원은 8일 『만일 이스라엘이 爐心과 연료저장소를 파괴했다면 이라크는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시작해야 할것이며 爐心을 재건하는데는 적어도 2~3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1957년 프랑스에 의해 건설된 네게브사막의 디모나에 있는 이스라엘 핵발전소가 1년에 원폭 1기를 생산하는데 충분한 플루토늄을 만들수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는 외신보도들에 관해 언급했다.

펠만은 이같은 평가들은 70년대말까지 이스라엘이 10~20개의 핵무기를 제조했다고 믿게끔 만들고있다고 말했다.

비록 이스라엘은 이문제에 관해 한번도 확인한바는 없지만 주변국들에게 이스라엘이 핵시대의 문턱에 이미 도달해있는것으로 간주하게끔 만들고있다.

四面楚歌자초한 이스라엘

워싱턴의 視角 이機 奇襲폭격이 몰고온 波長

核위협 봉쇄·總選 의식

아랍圈 團合·후견국 美곤경·佛도 비난

【워싱턴9日=曺淳煥특파원】 이스라엘전투기의 이라크 核시설파괴작전은 군사적으로는 거의 완벽한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공군 F16機9대가 바그다드교외의 핵시설을 3시간동안 폭격하는사이 F15機5대는 고공에서 이를 엄호했으며 이스라엘서 바그다드까지 왕복1천9백㎞비행에 공중급유까지 하고 모두 무사히 이스라엘로 되돌아갔다.

이스라엘 전폭기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영공을 침범, 바그다드로 비행했다.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거의 완전한것에 가까운만큼 아랍국가들의 분노는극에 달하고있다.

작년9월의 이란·이라크전쟁때는 아랍국가들이 분열되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아랍국가들이 정치적으로 단합할것같다.

아랍의 온건파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도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하나같이 강경하게 비난하고 나왔다.

駐美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이스라엘을 히틀러의오만한 침략행위에 비유하여 비난했다.

이스라엘은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겨냥, 히로시마형 핵폭탄을 제조하려고해서 사전에 원자로를 파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국제적으로 정당화 되기는 어려울것같다.

이스라엘의 후견국인 미국마저 이라크가 핵확산방지조약 서명국으로 그조약을 위반한 증거가 없다고 성명을 발표,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이스라엘은 핵확산방지조약 서명국이 아니다.

이라크는 원자로의 군사목적 사용여부에 관해서는 국제査察에 응하겠다고 말해왔다.

곧 열릴 유엔안보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은 완전고립에 빠질것같다.

이스라엘의 이번 군사행동은 미국을 여러모로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을 한편으로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을 다른편으로하여 中東에 안정세력을 굳혀 蘇련의 진출을 막고 석유를 보호, 평화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대전략에 구멍이뚫렸다.

특히 이집트 사다트대통령의 정치적입장을 매우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베긴 이스라엘수상이 사다트와 시나이사막에서 만난지 불과 이틀후에 돌연 이라크를 폭격한것은 아랍에 대한 사다트의 면목을 어처구니 없는것으로 만들었다.

미국은 사다트가 이스라엘에 화잉정치반응을 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같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시리아간의 전쟁을 회피하고 中東에 평화를 심으려던 하비브특사의 외교노력은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으로 공중분해되어 버렸다.

8일 파리에서 텔아비브로 비행하려던 하비브의일정은 연기되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약 5백㎞내의 모든 비행물체를 포착한다는 미국의 조기경보기 (AWAC) 4대가 미군기술요원의 조작하에 배치되어 있는데 사우디영공을 침범한 이스라엘機를 탐지해내지 못했으니 미국이 의심받지 않을수없게되었다.

미국기자들마저 8일국무성브리핑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美조기경보기는 무엇을 하고있었느냐고 따져들었다.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은 방위목적에만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미국무기를 이스라엘에 판매된 美外援法을 어긴것이어서 美의회에 상당한 파란을 불러일으킬것같다.

자블로키 下院외교위원장은 『골치아프며 분노를 자아낸다』고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판매를 재검토할것을 행정부에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F16機75대를 미국에 주문 53대를 인도받고 F15機40대를 주문 25대를 각각 수취했는데 나머지를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지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구실점으로한 아랍의 정치

美議會 "軍事販賣 재검토"

단결을 소련은 어떤 형태로 이용하려 할것이다.

아랍은 다시 석유를 對이스라엘 제재무기로 삼을지도 모른다. 프랑스의 미테랑사회당정부는 지스카르前행정부보다도 親이스라엘로 알려졌는데 미테랑정부가 이스라엘 군사행동을 신랄히 비난하고 나온것도 주목된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四面楚歌를 자초했는지가 문제된다.

이스라엘은 어떤 아랍국가도 핵탄제조를 못하도록기술 터득조차 막아버리겠다는 實利를 중시했다고 할수있다.

또 오는30일의 이스라엘총선을 베긴정권쪽에 유리하게 이끌려는 국내적 요인도 작용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中東에 긴장을 조성하여 미국과 아랍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미군을 中東에 주둔시키려는 전략적 구상이 깔려있는지도 모른다.

◇歡乎하는 이스라엘 國民들 이스라엘 국민들이 7일상오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공격뉴스가실린 신문을보고 「베긴만세」를 외치고있다. 【텔아비브 (이스라엘) 9日AP聯=特】

◇이스라엘은 바그다드 원자로기습공격에 F16전폭기(上)를, 엄호비행에 F15전폭기(下)를 동원했다.

이라크原電폭격各國반응

中東사태惡化우려

【美國】 딘·피셔 국무성대변인은 8일 성명을통해 『이라크원자로에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매우 심각한 사태발전이며 지대한 관심거리』로서 미국정부는 이를 극히 우려치 않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셔대변인은 이같은 이스라엘의 공습이 『전혀 예상밖의 일이며 이미 긴장상태에 휘쌓인 中東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처사』라고 말하면서 미제폭격기들을 동원한 이번 공격으로 인해 美國의 對이스라엘무기공급이 중단될 가능성도 없지않다고 덧붙였다.

美에사전통보非難

【蘇聯】 관영 타스통신은 바그다드發기사에서 이라크측의 발표를 인용,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원자로를 기습공격했다고 논평없이 짤막하게 보도했으며 워싱턴發기사에서는 소세계가 이스라엘의 이같은 『야만적인 공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美國이 이스라엘로부터 사전에 공습계획을 통보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용납할수없는처사

【프랑스】 피에르·모로와 수상은 『이스라엘의 이라크원자로공습이 용납할수 없는 매우 심각한 처사』라고 비난하면서 이번 공습으로 이미 폭발직전에 놓인 中東사태가 더욱 악화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정부가 이라크와의 계약을 존중할 예정이나 무기판매는 더이상 계속하고싶지 않다고 강조, 이라크에 건설했던 오시라크원자로를 재건할것인지의 여부에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심각한事態발전

【유엔本部】 일본을 방문중인 쿠르트·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은 보좌관을통해 이스라엘의 공습사실을 전해듣고 『中東안정에 지대한영향을 미칠 이같은 매우심각한 사태발전에 극히 우려를 표명했다』고 루돌프·스타지두하트 유엔대변인이 밝혔다.

全아랍圈, 이爆擊규탄

"무책임…中東사태 惡化행위"

【베이루트9日UPI聯=特】아랍국가들은 8일 이스라엘이 이라크핵발전소를 폭격한것은 이지역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행위라고 입을모아 이스라엘을 규탄했다. 이집트는 8일 이스라엘의 공격은 무책임하고 부당한것이며 지난주가진 사다트 이집트대통령과 베긴이스라엘수상과의 회담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집트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발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中東사태에 대해 깊은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는 中東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이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리아외무성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공중폭격에대한 전세계의 제재를 촉구하고 이테러행위는 아랍세계와 전세계에대한 경고라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할리드왕은 사담·후세인 이라크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스라엘의 폭격행위에 대한 사우디의 분노의 뜻을 표명했다고 이라크통신이 보도했다.

후세인 요르단왕도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에게 전화를걸어 이스라엘의 침략행위를 규탄하고 이라크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약속했다. 차드리·클레이비 아랍연맹 사무총장도 이스라엘의 폭격을 테러행위라고 비난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측은 이라크의 입장에 동조하고 이스라엘의 목적은 中東지역의 긴장을 증가시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對이스라엘 武器禁輸않을듯

美, 中東지역 연쇄紛爭 우려

【튀니스9日AFP聯=特】아랍연맹회원국들은 이라크의 원자로에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책을 토의하기위해 앞으로 48시간내 바그다드나 튀니스에서 긴급 아랍연맹 외상회담을 열것이라고 아랍연맹소식통들이 9일 밝혔다.

【워싱턴8日UPI聯=特】이스라엘의 이라크원자로공격사건에는 미국이 공급한 F16전폭기 9대와 이보다 강력한 성능을 보유한 F15전폭기 5대가 동원됐다고 워싱턴의 美정보소식통이 8일 말했다.

【워싱턴9日=曺淳煥특파원】 레이건행정부는 오시라크원자로폭격을 비난했으나 對이스라엘 무기금수조치는 취하지않을것이라고 美CBS-TV방송이 고위행정부소식통을인용, 9일 보도했다.

미국은 연쇄적 군사행동이 중동에서 일어나지않도록 관심을 집중하고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비난, 그결과 아랍국가들의 對이스라엘군사행동을 초래하는 일을 삼가할것이라고 이방송은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비난이 레이건 대통령의 성명으로나오지 않는것을 들어 그렇게 신랄한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이방송은 보도했다.

原子爐 복구可能

駐佛 이라크大使

【파리9日AFP聯=特】누리·이스마일 駐佛 이라크대사는 8일밤 프랑스기술자들이 지난7일 이스라엘공군기들의 폭격으로 파괴된 이라크 원자로를 재건할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밤 프랑스 TV를통해 파괴된 원자로를 건설했던 유능한 프랑스기술자들이 언제든 이를 재건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라크는 원자력 계획을 계속할것이라는 점을 우방인 프랑스에 다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中東전역制空權

【텔아비브9日AFP聯=特】이스라엘공군은 리비아의 토브루크에서 이라크수도 바그다드에 이르는 전中東지역과 터키수도 앙카라에서 이디오피아의 마사와에이르는 전지역의 제공권을 장악하고있다고 텔아비브의 마아리브지가 9일 보도했다.

爆擊地點서 31㎞밖

한국인工事場 안전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지난 7일폭격한 지점에서 31㎞떨어진 이라크의 바그다드시에는 현대건설에서 2천3백여명의 건설기능공을 파견하고있다. 그러나 두군데의 공사현장은 피해가 전혀없는것으로 밝혀졌다.

"臺灣에공급계속땐 美서武器구입안해"

中共외무성 대변인

【北京9日UPI聯=特】중공은 9일 미국무기의 對자유중국공급을 조건으로하는 이상 어떠한 미국무기의 공급도 수락하지않을것이라고 정식으로 밝혔다.

5일 미국이 중공에 최신군사기술을 제공할것을 검토중이라는 미국무성의 발표에 대한 공식반응으로 이같이 말했다.

알렉산더·헤이그 국무장관의 중공방문을 불과 수일앞둔 이날 중공외무성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중공이 미국의 對자유중국무기판매에 동의하거나 간섭하도록 허용하느니 차라리 미국무기를구입하지 않을것임을 거듭밝힌바있다』고 지적했다.

波 共產黨전체會議

蘇경고후 緊急소집

【바르샤바9日AP聯=特】폴란드는 9일 민주화개혁을추진하고있는 폴란드 지도층에 대한 소련의 강력한 경고가 있은후 폴란드공산당중앙위 제11차 전체회의를 긴급소집했다.

당중앙위 11차 전체회의가 이날 하오2시(현지시간)개막됐으며 스타니스와프·카니아 당제1서기는 『소련이 사회주의에대한 위협은 폴란드의 독립을위태롭게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히고『우리 우방들은 이같은 행동을할모든 권리를 갖고있다』고 말했다.

메아리

신라 천년의 고도인 경주에서도 월성과 계림과 안압지와 황룡사 분황사등에 에워싸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첨성대는 근자에 이르러 갑자기 학문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일반의 호기심을 한껏 부채질을 하고 있다.

즉 신라 27대 선덕여왕때에 건립된 이 7세기의 유구는 화강석으로 축조된 원통형으로서 지금까지는 동양최고의 천문관측대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한계일각에서 이에 이론을제기하여 첨성대는 왕성의 길흉을 점치는 점성술을 위주로하는 천문관측소라는 설이 있는가 하면 국가적인 의식에 사용되었을 제단이라는주장도 나돌아서 가위 백가쟁명의상태다.

더우기 이와같은 학계의 관심에 곁들여 방송국이 관계자들을 동원하여 제가끔의 이론을바탕으로 한 화면으로 방송함으로써 궁금증은 점널리 시청자들에게도 확산되어 관심도가 점차 증폭해 가는듯이 보인다. 이처럼 첨성대를 두고 과학자들이 한마디씩 할수 있는 것도 필경은 첨성대의 축조동기와 그 기능을 소상히 밝혀주는 결정적인 문헌이 없기 때문이다.

瞻星臺 論爭

아무리 문헌이 없다고 해도 이처럼 중요한 고대시설물에 대한 구비전승이나 똑똑히 전해내려왔다면 별문제가 없겠는데 그마저도 없으니 자연 각색으로 만만 무성하다.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에 경주에서는 한국과학사학회에서 첨성대를 놓고 문헌사학의 측면과 토목공학적인 관측, 실측 및 복원도에 의한 비교분석등 다각적인 안목으로 그 기능을 밝혀보려는 시도를했다.

그런데도 아직은 첨성대가 정확히 무엇이란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것은 오히려 당연한일이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진실, 그것도 아득한 옛날에 이미 저버려진 사실의 확인이란 결코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첨성대가 그 신비의 베일을 벗게 되는 것은 우리의 학문적인 축적이 어느 수준에 이른 먼 훗날이 될 것이다.

그날까지 학계나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이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말고 꾸준히 참고 기다리는 아량을 안보인다면 첨성대를 에워싼 알맹이 없는 말만 더 무성해질 염려가 크다.

친애하는 상점 경영주 교포 여러분

그동안 저희 Hit Cash & Carry를 애용하여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셔서 6년간 경영하는 동안 무사히 사업을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면으로 협조,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고 6월8일 이후에는 한인연합상사에서 보다 더 좋은 써비스로 여러분들께 봉사할 것입니다.

6 월8 일

HAN INDUSTRIAL TRADING COOPERATIOR LTD

대표이사 유 영 갑 배

" 토론토한인 테니스 클럽 회원모집 "

테니스를 좋아하거나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 친목과 연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장 소 : 더프린 Mall건너편 공원속 (더프린×불루어)

시 간 : 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전11시

시 작 : 6월20일(토)부터

※김가별, 이건영 선생의 쥬니어및 성인남녀 무료 렛슨

연락처 : 바시티 운동구점 967-7304

장북성 964-2990.

김일현 881-9232

토론토 한인 테니스 클럽

垈地50坪·건물25坪 단독住宅 新築費 2,700만원들어

땅값35만원·建物41만원

垈地 79년 55% 80년엔 23%上昇

住宅銀行조사

서울에서 집을 새로 지을때 드는 비용은 땅값이 평당 평균 35만1천8백원, 건축비가 평당평균 41만1천3백원으로 건평25평 대지50평정도의 주택을 지을경우 신축비가 2천7백만원정도 드는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은행이 9일 단독주택 신축을위해 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2천6백2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본결과 80년중 전국평균으로 대지는 평당 16만7천1백원, 건축비는 평당 40만6천8백원이었으며 서울은 대지가 35만1천8백원, 건축비가 평당 41만1천3백원 드는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의경우 대지값은 평당 78년에 18만4천6백원, 79년에 28만6천1백원, 80년에 35만1천8백원으로 연간 상승률이 80년에 23·0%, 79년에 55·0%나되는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축비는 평당 78년에 28만2천1백원, 79년에 34만5천7백원, 80년에 41만1천3백원으로 연간 상승률이 80년에 19·0%, 79년에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年度別 坪當垈地價格비교 (單位：萬원)

地域 / 年度	全國	比前年增加(%)	市部	比前年增加(%)	서울	比前年增加(%)	市外	比前年增加(%)
1978	12·68	—	—	—	18·46	—	—	—
1979	14·11	11·3	15·23	—	28·61	55·0	10·30	—
1980	16·71	18·4	16·96	11·4	35·18	23·0	14·28	38·6

◇年度別 坪當建築費비교 (單位：萬원)

地域 / 年度	全國	比前年增加(%)	市部	比前年增加(%)	서울	比前年增加(%)	市外	比前年增加(%)
1978	26·30	—	—	—	28·21	—	—	—
1979	34·74	32·1	34·85	—	34·57	22·5	34·34	—
1980	40·68	17·1	40·56	16·4	41·13	19·0	41·84	21·8

5월중 通貨量이 줄어들었다

1천8백86억감소 海外收支적자등 要因

지난5월 한달동안 시중돈이 많이 줄어들었다. 시중실물거래수요를 뒷받침하는 통화량이 5월중 1천8백86억원이나 줄어들었을뿐아니라 4월까지 월평균 1천8백40억원씩 늘어났던 內與信도 2천2백86억원 증가에 그쳤다.

9일 재무부가 집계한 5월중 통화동향을보면 국내여신이 2천2백86억원이나 공급되었지만 해외부문에서의 수지적자가 늘어남으로써 국내 총유동성을 나타내는 總通貨(통화량에 저축성예금을합친것)는 5월 한달동안 1천3백79억원이나 감소, 전년동기에비해 25·6%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지난4월중증가율29·0%에서 크게 떨어진 것이다. 통화량도 줄어 5월말현재 작년동기대비 20·7% 증가에그쳤는데 이것도 4월중 26·7%증가율에비하면 큰대조를 보이고있는것이다.

특히 국내여신중 은행창구를 통해 기업등에 공급되는 민간부문자금은 올들어 지난4월까지만도 월평균 2천8백24억원씩 공급되었으나 5월중에는 1천8백19억원(환율인상에따른 명목증가분 제외)밖에 공급되지않아 기업자금조달엔 상대적으로 허리를 죄어야 했다.

통화사정이 이처럼 빡빡해진것은 그간 많이 풀려나간 자금이 인플레를 자극하는것을 막기위해 정부가 통화공급을 줄인때문인데 특히 해외부문에서는 국제高金利로 인한 무역외수지적자및 차관원리금상환부담 증가로 순외화자산(NFA)이 5월중 5억7천5백만달러나 감소, 3천4백38억원의 시중자금이 외화를 바꿔쓰기위해 한국은행으로 빨려 들어갔다.

한국인 갱團

LA紙보도 부하4백명

【워싱턴8日=聯合】로스앤젤레스의 한한국교포가 갱단을 조직, 한국교포들을 위협, 금품을 갈취하고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즈가 8일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즈紙는 이 갱단두목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경찰은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에도불구, 충분한 증거를 찾지못해 법적조치를 취하지 못하고있다고 말한것으로 전했다.

경찰은 그의 범죄활동에관한 장문의 보고서에서 그가 4년전에 미국에 이주, 라이벌 갱조직을물리치고 세력을 확보했으며 6~7명의 간부와함께 4백여명의추종자들을 거느리고있다고 이신문은말했다. 이신문은그가한국상인이나 실업인들이 현지사정에미숙한 약점을 이용, 자신의요구에 응하지않는자들은 보복을당할 것이라고 협박, 금품을 갈취하고있다고 말했다.

한 음식점주인은 매달3천달러씩을 주고있고 한 부유한실업가는 이미 8만달러나 제공했음을 인정했다고 이신문은전했다. 이신문은 또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한국교포들이 은행에 예금하는대신 거금을 휴대하고 있기때문에 쉽게 갱단들의 협박대상이되고있다면서 한여인은 4천달러가 들어있는지갑을 강탈당한적도 있다고 말했다.

湖油확장공사 竣工

國內최대 施設규모 하루38萬배럴로

湖南精油(대표具平會)는 9일 상오10시 麗水공장에서 朴鳳煥동자부장관, 李台燮국회상공분과위원장, 허커 칼텍스사장, 同社 임직원및 여수지역주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38만배럴확장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湖油는 15만배럴규모의 제3常壓蒸溜塔을 건설, 시설능력을 현재 日當 23만배럴에서 38만배럴로 확장함으로써 규모면에서 국내최대의 정유회사가됐으며 세계 9백개정유공장중單一工場으로는20위안에 드는 대단위공장이됐다.

自動車부품산업 중점育成

기술개발, 財務構造 개선지원

商工部는 自動車 산업육성 시책의 내용을 일부수정, 內需기반이 취약하고 수출에어려움이 많은 完成車(자동차조립산업) 대신自動車부품산업을 전략수출산업으로 중점육성키로했다.

상공부는 중점육성업체및 계열화체제의 확대방안으로 자동차부품전문생산공장을 3백개업체로 확대하고 계열화대상품목을 현행 42품목에서 1백개품목으로 확대키로하고 재무구조건실화를위해 81년중 중소기업은행및 信用보증기금에서 1백억원을 자동차부품업체에 출자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저리자금중 1백억원을 부품업체운영자금으로 지원키로했다.

大韓敎保빌딩의 主設計士는

在美동포 朴起緖씨

GA社 8人멤버, 한국古典의 現代式표현

지난1일 준공된 大韓敎育保險빌딩의 설계를 맡은 美國 용역회사 그루엔·어소시에이츠의 건축가 3명 가운데 在美동포인 朴起緖씨(사진)가 主設計士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에本部를둔 그루엔·어소시에이츠(Gruen Associates)는 근대적 쇼핑센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빅토르·그루엔씨가 10년전에 설립한 건축, 도시계획및도시재개발분야의세계적엔지니어링회사.

朴起緖씨는 이회사를 움직이는 8人의 한사람인데 敎保社가 설계의뢰를 해왔을때 이빌딩의 主設計士로 임명됐었다는것.

51년 京畿高를 졸업하고 美캘리포니아州立 버클리대학에서 건축공학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건축학및도시계획석사학위를 얻고 61년에GA社에 入社, 72년부터 8人의 동업자중 한사람이 됐다.

28년간을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는 敎保빌딩의 설계테마가 한국고전건축양식의 현대적표현이라고 말한다.

빌딩내외의 둥글고 커다란 갈색기둥은 궁궐의 기둥을 현대적으로 표현한것이며 건물후면에 가든·테러스를 만들어 1년내내 푸른 수목을 감상할수있게한것이나 건물주변의 遊園은 오늘날 미국의 빌딩디자인 추세라는 설명이다.

朴씨는 한국의 고층아파트가 칼로 케이크를 자르는식의 쿠키·커터·어프로치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의 수도권 스카이라인계획에 대해서도 행정부의지나친규제나 권장은 결국 땅값만 올려놓는등의 부작용을 가져올수 있다고 조심스런 견해를 밝힌다.

76년 서울시 도시계획자문위원으로 위촉된적이 있는 그는 행정수도 재배치 10개년 계획을 10년내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반대했었던 장본인이기도하다.

그는 이란의수도 테헤란의 장기개발계획, 영국·호주·멕시코·파나마·베네수엘라의 도시계획, 10억달러가 투입되는 캘리포니아센터의 설계를 맡고있다는 것.

그는 시저·펠리 예일대학교 공대학장이 교보빌딩의단독설계자로보도되고있는데대해 펠리교수는 76년초에 6개월간만 함께 설계작업을 한뒤 예일대학으로 스카웃됐다고 말했다. 【桀】

財界 로터리

公正去來室 판결궁금

○…여름 성수기를 노려 지난 4월부터 유명財閥계열의 두냉장고메이커간에 벌어진 치열한 광고式 치고받기 廣告戰이 드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비방이란 맞提訴戰으로 확대, 어차피 一戰決戰이 불가피한 사태로 진전.

지난달의 金星社측 냉장고광고비방 提訴가 취하될 기미가 없자 三星電子측도 9일 이에 질소냐는 자세로 金星社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맞提訴를 제기했다.

三星의 이날 提訴내용인즉 金星社광고문안의『金星社 제품을 쓰면 후회않습니다』는 말은 결국 他회사제품을쓰면 후회한다는 뜻으로 경쟁상대인 三星제품판매에 피해를주었고 적은돈으로 큰냉장고란 선전도 容量은 고작8ℓ를 늘렸는데 선전도면은 70ℓ를 늘린것으로 과장표시했다는등 10개항의 시정사항을 지적.

이에대해 막상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양측의 주장이 분명해 提訴를 기각, 싸움을 말릴 성질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벌의 살벌한 싸움에 말려들기도 꺼려 외국判例조사다, 냉장고技術관계검토다하여 차일피일 기한만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눈치.

主人바뀐 韓瑞食品

○…농어촌개발공사와 스위스 네슬社가 합작설립한 韓瑞食品을 민간에 불하키로했다는 당국의 방침이 알려지자 이의 인수를 둘러싸고 식품업계에서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고있다는 소식.

韓瑞食品은 지난78년2월 農開公과 네슬社가 50대50으로 합작설립, 이유식과 유아식및 각종 고단백식품을 생산해왔는데 네슬社측에서 農開公과의 합작을 변경해달라고 줄곧 요청해온데다 정부서도 국영기업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 農開公지분을 민간에 넘기기로 한것.

韓瑞食品은 설립자본금이 45억원으로 79년 淸州제3공단에 공장을 지어 유아식시제품생산에들어갔는데 본격생산은 오는7월부터라고.

건축産業 不況에허덕

○…住宅景氣가 침체에서 헤어나지못하자 시멘트, 철근, 장판, 판유리, 타일, 合板등 건축관련산업이 모두 질식상태가 되어버렸다.

특히 건축관련산업중에서도 가장 심한不況을 겪고있는것은 철근인데 주요철근메이커들은 적자가 누적되어 모두 비상대책을 강구중. 東國製鋼의 경우 매월10억원씩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할길이없어 서울의本社를 釜山공장으로이전하고 인원을 대폭감원하는 계획을 구상하고있으나 그렇게되면영업활동마저 대폭위축될 수밖에없어 망설이고 있다.

또 錦湖産業은 적자를 감당할길이 없어 아예 母企業인 錦湖實業에 합병해버렸고 江原産業은 다른파트에서 철근부문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 다만 仁川製鐵은 모기업인 現代건설에서 좋은값에 사주기때문에 아직까지는 큰걱정 없이 지내고 있으나 최근에는 건설파트에서 불평이 많아 仁川製鐵도 조만간 불황의 실체를 체험하리라고.

대규모 새建設會館

○…서울江南區鶴洞에 새로운 건설회관이 세워진다. 건설공제조합이 건설협회와 해외건설협회의 출자를 받아 3法人공동소유건물로 짓게될 새건설회관은 지하2층 지상15층 연건평 8천평규모의 매머드 빌딩.

공제조합은 지난해 土開公으로부터 鶴洞에있는 대지 2천46평을 구입했으며 漢陽住宅에서 설계한 도면을 기본도면으로 선정, 곧 시설 설계에 들어가 오는10월께는 정식으로 착공할 계획.

새회관은 오는83년말까지 준공될 예정인데 공제조합과 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등은 물론 건설부산하 기관중에서 사옥을 갖지않은 기관은 모두 입주시켜 名實共히 건설회관의 면모를 갖추게될것이라고.

한편 건설업계는 새회관 건설공사가 2백억원규모의 대형공사인데다 협회의 會員社마다 主人을 자처하고있으므로 공개경쟁입찰에 붙인다해도 공사를따내기위한 受注戰이 전례없이 치열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韓瑞食品불하싸고 식품업계에 熾烈한경쟁

냉장고싸움, 이번엔 三星서 金星을 提訴

全經聯부회장…내정설만紛紛 아직五里霧中

全經聯後任人事難航

○…金立三前상임부회장이 綜國技術開發(株)사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공석중인 全經聯상임부회장선임문제가 說만 亂飛한 가운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종전의1명에서 업무를 관리와 국제및 정책사이드로나누어 2명의 상임부회장을 둔다는 방침은 굳혀졌으나 金부회장이떠난지 40일남짓동안 尹泰業전무와 文德周前유엔대사가 내정됐다느니 재벌2세를 상임부회장에앉히는 문제가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는등 후임부회장선임문제는 설만 무성한채 아무런 결말을 보지못하고 있다.

관리담당부회장엔 尹泰業전무를 승진, 기용한다는 재계중진들의 당초 방침엔 하등의 변화가없는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들이 文前유엔대사를 재계의 안살림꾼으로 기용하는문제에異見을 보여이처럼 난항을 거듭하고있다는것.

일부재계중진들 사이에선 재벌2세를 상임부회장으로앉혀 全經聯운영의 활성화를꾀하자는 방안이 강력하게 대두되고있어 국제및정책담당부회장엔 알려진것과는달리 의외의 인물이 선임될 공산이짙다.

關心쏠린어음거래擴大

○…90일이상 1천만원이상의 융통어음 발행금리를 연 40%이내에서 자유화하도록 한 정부의 어음거래확대조치는 업체와 私債錢主 및 일반 錢主들의 비상한관심을 끌어 벌써부터 어음취급기관인 短資會社와 協會에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錢主들이 특히 관심을 보이고있는 대목은 세금관계가 어떻게되느냐 하는 것과 어음을 매입할때 매입한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는지 여부.

이들은 投資金融協會와 短資會社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음거래에 관해 이모 저모로 캐묻고 있다는 것.

한편 企業들이 두드러지게 관심을 보이고있는 대목은 금리(할인율)가 어느수준에서 결정되겠느냐 하는 점이라고.

1천억원 플랜트工事

○…大宇그룹(대표金宇中)이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1천억원짜리 海水처리 플랜트공사를 따냈다.

大宇는 8일 美國샌프란시스코현지에서 金宇中회장과 洪寅基大宇造船사장이 참석한가운데 세계적인 석유및 엔지니어링회사인 벡텔社와 1억5천만달러짜리 海水처리플랜트 受注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 계약은 美國 日本 캐나다 北歐등 先進造船國 27개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최종단계서 日本의 石川島播磨중공업및 三菱중공업과 경쟁을 물리치고 大宇造船이 따낸것. 이번공사는 美알래스카 북쪽 프루드호灣에 길이 1백85m 넓이47m 높이35m의 초대형 海上바지(플랫폼)를 설치, 바닷물을 화학처리해서 油田개발에쓰이는 공업용수를 하루2백만배럴씩 생산공급하는 플랜트로서 83년5월까지 완공예정.

특히 이번계약은 플랜트수출가운데 가장 좋은 조건인 현금受注베이스(공사진척도에따라 대금지급)인것외에도 현재 세계각국이 油田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해상발전소 해상펄프공장 석유플랜트등 각종 플랜트를 바지化하는 마당에 세계적으로 공정및 품질관리가 까다로운 벡텔社와 계약함으로써 이와 비슷한 바지플랜트發注가 한국에 몰릴것으로 기대되고있다.

自動홍보장치 첫선

○…외국인바이어투숙객들이 단추만 누르면 원하는 국내회사의 위치, 전화번호, 제품내용이 동시에 화면에 나타나는 Telegui-de장치가 동남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국내호텔에 설치돼 9일부터 가동되고있다.

호텔신라(대표 孫永禧) 1층로비에설치된 이 자동홍보장치는 늘어나는 외국인투숙객들의 구매편의를 돕기 위한 것인데 벽면에 기재된 국내 계약사이름을 보고 해당회사단추를 누르면 15~7인치 크기의 화면에 알고자하는 회사의 산업정보가 나타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옆에 설치된 회사별 2대의 직통전화를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게 돼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이 자동홍보장치는 올해안에 金浦공항과 KOEX등에 추가설치해 한국을찾는 외국인 바이어에게 손쉬운 정보를 제공할 예정.

현재 화면크기에 따라 연간 광고료 93만8천원~1백67만원을 내고 호텔신라와 계약한 회사는 半島商事, 三星物産, 國際商事, 雙龍, 金星社, 三星電子, 新世界, 甲乙(株), 明星그룹, 제일모직, 월드컵, 남선물산, 진로, 론노패션, 일식레스토랑 자매등 16개社로 호텔측은 올해안에 계약사를 50개社로 늘릴 계획이다.

本報 창간27돌

2百여社員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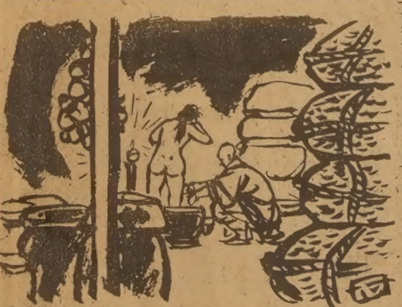
한국일보 창간27주년 기념식이 9일상오10시 張康在회장을 비롯한 본사간부및 국내외 지사·지국·보급소장·사원등 1천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다.

張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힘과 지혜로 뭉치는것이 한국일보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張吉山 (1591)

黃晳暎 作 /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51)



마당을 건너지른제 바라보니 계화는 부엌 문 뒤에 숨어서 그가 저지르는 짓을 훔쳐볼 모양이었다. 머리가 밖으로비죽이 나왔다가 여환의 시선에 부딪치자 잽싸게 숨는 것같았다. 광문을 밀고들어가니 안은 캄캄하였다. 문을 조금 열어놓고 보니까 희미하나마 구석에 쌓인 곡식섬이며 소금 대독들이 보였다. 바로 한가운데 물동이가 놓였고 동이 가운데 바가지가 떠있었다. 여환은 광문밖에다 대고 소리쳤다.

『보살님, 불이라도 좀 켜다주오』

계화가 등잔에 불을 붙여서 조심스럽게 손바닥으로가리우고 들어왔다. 계화는 여환을 똑바로 보지못하고 얼른 대독 위에 올려놓더니 또 아무 소리없이 나가버렸다. 여환은 두리번거리다가 먼지를 뒤집어쓴 자배기를 들어다 놓고 물을 부어 깨끗이가셔냈다. 물의 온기가 적당하게 따뜻하였다.

『이리 앉아라』

원향이는 물이 담긴 자배기 앞에 다소곳이 앉았다. 여환은 한손은 원향이의머리에 대고 다른 한 손으로 물을 움켜 낯을 씻어 주었다. 원향이는 상을 찡그렸을뿐 그대로 견디었다.

『아, 원향이 이쁘다』

이번에는 뒤통수를눌러 고개를 숙이게 하고나서 뭉치고 헝클어진 머리를 자배기속에 담그도록 하였다. 여환은 손가락을 갈퀴 모양 벌려서 원향이의 엉킨 머리카락들을 훑어 내렸다. 실성한것에게도 시원한 기분은 있었는지 더욱 머리를 깊숙이 숙이면서 얌전히 쭈그리고있었다. 물이 대번에 검게 되었다. 여환은 자배기의물을 갈아 다시한번 머리를 헹구고나서 허리춤에서 무명 수건을 풀어내어 얼굴과 머리를 대강 닦았다. 여환은 잠깐원향이의 훤해진 모습을바라보더니 대뜸 장삼을 젖혔다. 여미던 앞섶이 열리며 뽀얀 젖이 봉곳하니 드러났고 아래로 처진 바지춤 위로는 도톰한 아랫배와 배꼽이 드러났다. 여환의 손은 불이 센 화로 위에 놓이었을 때처럼 조심스러워졌다. 손가락 끝은 물고기에 닿은듯이 민감하게 파들거렸다. 여환은 차라리 손을펴서 원향이의 살에꽉눌렀다. 그는 바지춤을끄르고아랫도리마저 벗겨버렸다. 빈 자루처럼 허물이 주욱발목에까지 흘러내렸고 원향이의 흰 속살은 물이 찰랑찰랑한 자배기위에 소담한 백국(白菊)처럼 서있었다. 여환은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에 물을떠서 원향이의 어깨에부었다. 물은 할뭇이 가슴을 타고 젖무덤을 넘어 아랫배로, 허벅지에서 발등으로 스쳐 내렸다. 여환은 또다시 물을 끼얹었다. 등뒤로 타내린 물은 등마루를 지나 척추를 따라서 벌어진 볼기를 쓰다듬고 종아리를 때리며 떨어졌다. 원향이의몸은구석구석 젖었다. 여환은 물을 조금씩부으면서 한 손으로 원향이의 육신을 문질렀다.

『지심귀명례(志心歸命禮) 사주지알표의 성승현응자단의(四州之遇漂溺 聖僧 現應紫檀衣) 섭부지지옹미 선녀화류금쇄골(陝府之止 蛯迷 仙女化留金鎖骨) 대비대원 대성대자 성백의 관자재보살 마하살(大悲大願 大聖大慈 聖白衣 觀自在菩薩 摩訶薩)』

여환은 관음보살께 바치는 법요를 외우며 원향이의목덜미와 가슴께를 씻었다. 사주지알표의 (四州之遇漂溺)이라함은 송가대사의 행적을 일컫는다. 송가대사는 서역동북의 하국(何國) 사람으로 어려서 출가하였는데, 당나라 때 강회(江淮)에 이르러 유화(遊化)하였다. 여러가지 신기한 일이 많아서 다 전할 수는 없으되, 이러한 일도 있었다.

토론토시 1981년 부동산세

시와 세법, 토론토시 조례 No. 299-81, 300-81에 따라 1981년 부동산세가 결정되었다. 중간에 보낸 계산서 금액을 참작하여 나머지 잔액에 대한 지불날짜는 다음과 같다.

구분 :

5번째 분할불입금 6월15일
6번째 〃 7월15일
7번째 〃 8월17일
8번째 〃 9월15일

부동산세 요금은 6월1일 이전에 보내졌다. 이러한 세금·용지를 받지못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시청 1층 세금 카운터에 신청을 하시거나, 367-7115로 전화하시거나, 시청에 편지를 내면 된다.

세금지불 :

세금은 기일내에 한해서 토론토시내 은행 아무지점이나, 트러스트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은행이나 트러스트 회사에서는 약간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수표나 모니·오더는 시 회계과에 의해 작성되어 시청에 우송될 수 있다.

시청근무 시간 : 오전 8시30분~오후4시30분(월~금요일)

시 회계사
W. A. WILFORD

서울공고 정기총회 및 야유회

1981년도 토론토지구 서울공고 야유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가족동반 하시어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 6월20일(토) 오전11시(가족동반)
장 소 : MORNINGSIDE PARK
연락처 : 447-7602, 921-0624

※점심은 동창회에서 전부·부담하오니 모두 오시어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울공고 동창회장 김윤용

번역·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Tor. M4A 2R1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 : 759-9505(5시이후)

비둘기사진 식자인쇄소

고급 인쇄를 원하시면 사진식자가 있는 비둘기 인쇄소를 찾으세요.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 : 493-8894 윤 좋 대

북미최대의한국식당

한식·중화요리·화식·캐네디안식

거구장

※환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대소연화

영 업 시 간 : 아침11시부터 밤2시까지 연중무휴

가수와밴드 : 목, 금 토, 일(8시30분부터 밤2시)

가 수 : 신 현 희

→ 특 별 메 뉴 ←

개스불로 굽는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중화요리·케네디안식
요리전문
2백대 수용무료파킹장

5 BETHRIDGE RD. ETOBICOKE
KIPLING×HWY 401서·1 블럭 북쪽 첫신호등서 좌회전

☎ : 742-1618 곽 정 렬 · 김 선 남

善隣商, 개막競技서 樂勝

청룡기야구 강호 群商4-2로 눌러

◇大勢판가름난 3回 대세를 가름한 3회초 善隣商 공격. 포볼로 나갔던 趙永一이 李畯宰의 우중월 3루타로 홈인, 4—0으로 승세를 굳혔고 타자주자 李는 3루에서 세이프되고 있다.

朴魯俊 投打서 맹활약

中學部 中央中 裵炫奭 2點홈런

개막일 1회전에서 부딪친 강호 善隣商高와 群山商高의 대결은 朴魯俊의 투타에 걸친 맹활약에 힘입어 善隣商의 승리로 끝났다. 9일 서울운동장에서 막을 올린 제36회 청룡기쟁탈 전국중고야구대회 고등부 첫경기서 대회 2連覇를 노리는 善隣商은 1회초 밀어내기로 선제점을 올린후 3회초 3번 朴魯俊의 적시 2루타·6번 李畯宰의 2타점 3루타등으로 3득점, 대세를 결정지어 대통령배대회를 제패했던 강적 群山商을 4-2로 격파했다.

善隣의 좌완선발 朴魯俊은 3회까지 산발2안타로 群山商공격을 압도, 승리의 기틀을 다졌으며 공격에서도 5타수3안타1타점의 수훈을 세웠다.

善隣은 1회초 群山商선발 裵大浩의 난조를 틈타 3번 朴魯俊의 좌전안타와 2포볼로 1死만루의 찬스를 포착. 첫고비에 부딪친 群山商은 라이트에 대기하고있던 대통령배대회 우승투수 趙啓顯을 구원등판시켰다.

그러나 趙도 5번趙永一에게 포볼을 허용, 밀어내기로 1점을 잃었다. 善隣은 1死만루의 계속된 찬스에서 6번 李畯宰가 스퀴즈번트를시도, 내야플라이로 잡히는 바람에 3루주자까지 병살당해 추가 득점기회를놓쳤다.

그러나 3회초 1死후 2번 金國鎭이 좌전안타로 포문을열고 3번 朴魯俊의 2루타, 2死후 5번 趙永一의 포볼, 6번 李畯宰의 주자일소 3루타로 단숨에 3득점, 승리를 굳혔다.

群山商은 8회말 선두8번 裵大浩가 좌전안타로 물꼬를 열고 1死후 1번 金平鎬의 우중월3루타, 2번 高長亮의 센터희생플라이로 2점을 만회했으나 역전에 실패했다.

◇첫날전적

▲고등부 1회전

선린상	103	000	000	—4
군산상	000	000	020	—2

▲중등부 1회전

춘천중	201	00	—3
중앙중	203	15	—11

<5회콜드게임>

▲홈런=裵炫奭(5회말·2점·중앙)

마산중	000	10	—1
신일중	430	11	—9

<5회콜드게임>

청주중	000	00	—0
충장중	080	2×	—10

<5회콜드게임>

▲홈런=金光勝(2회말·3점·충장)

챔피언 챈들러逮捕 麻藥類 소지혐의로

【필라델피아 8日AP=聯合】프로복싱 WBA(세계권투협회) 밴텀급 챔피언인 美國의 제프·챈들러(24)가 7일 필라델피아 마약단속반원에게 마약소지혐의로 체포돼 8일 재판을 받았다. 경찰은 챈들러가 7일밤 교통법규위반, 경찰에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 위해 지갑을 꺼내던중 차안에서 코카인이 든 봉지로 보이는 장물품 4개가 발견돼 경찰에 연행됐다고 밝혔다. 프랜시스·카드란사는 오는 7월16일 사실심리에 자진출두하겠다는 서약을받고 챈[illegible]

第一合纖 2연패

金浣등 활약…星武團제압

女高A·B組 전북裡一·충남 호수돈수위

市道대항 탁구

【全州=李廷元기자】제7회 국무총리기쟁탈 전국남녀 시도대항 탁구대회 남자일반부에서 第一合纖(경북)이 星武團(충북)을 4—0으로 꺾고 우승, 2連覇했다.

오는17일부터 열리는 全英오픈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第一合纖은 이날 결승전에서 국가대표 金浣 金琦澤등의활약으로 星武團을 가볍게물리쳤다. 星武團은 준결승전서 大宇중공업과 4시간에 걸친 대격전끝에 4—3으로 신승 했었다.

한편 여고부에서 全北裡一과 忠南호수돈이 각각A、B조수위를 차지하고 결승토너먼트에 올라 10일 安養여고(A조2위), 明知여고(B조2위)와 대결하게 되었다.

◇제2일전적

▲여고A조 裡一 4—1 부산여상 ▲남일반 준결승 제일합섬 4—0 전북OB, 성무단 4—3 대우중공업 ▲동결승 제일합섬 4—0 성무단

▲동순위=①전북이일 3승 ②서울명지 2승1패 ③부산여상 1승2패 ④성수여상 3패 ▲동B조 호수돈 4—2 경신 ▲동순위=①호수돈 3승 ②경신 2승1패 ③[illegible] 1승2패

종별男女농구 폐막

韓國化·福祉우승

東國大·龍山高도

제1회 서울시 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서 韓國化粧品 福祉園, 東國大 龍山高 善一女高가 각각 우승을차지했다. 9일 장충체육관서 벌어진 남고부결승전서 龍山高는 田昌眞의 맹활약으로 景福高를 85—83으로 물리치고 우승했으며, 여고부 결승전서 善一女高는 李美子의 리바운드와 金享波의 어시스트로 崇義女高를 71—55로 격파, 우승을 차지했다. 대학부서는 東國大가 國民大를 88—80서 제압했고 韓國化粧品과 福祉園은 부전승으로 우승했다.

◇최종일 결승

▲대학부 동국대 88(40—42, 48—38)80 국민대

▲남고부 용산고 85(43—45, 42—38)83 경복고

▲여고부 선일여고 71(41—26, 30—29)55 숭의여고

韓·日 실업蹴球戰 21·23일 日서開催

제8회 韓日실업축구 정기전이 오는 21일과 23일 두차례 日本에서 열린다.

高齡 體育人동우회 來14일 泰陵선수촌

60세이상의 체육인과 그가족 3백명이 참가하는 운동회가 체육인동우회(회장 金用雨)주최로 오는 14일 泰陵선수촌 구장에서 열린다.

U대회 選手團 74명확정

7월19일 루마니아

陸上·배구등 7종목出戰

◇張忠植단장

◇李康平감독

대한 체육회는 오는 7월19일부터 30일까지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서 열리는 81년도 하계 유니버시아드(세계대학생 경기대회)에 파견할 한국대표선수단 74명의 명단을 확정, 9일 발표했다.

한국 선수단은 張忠植단장(檀國大총장)을 비롯하여 본부임원 9명, 경기임원 11명, 선수 50명(남46·여4), 국제심판 4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육상 배구 농구 테니스 펜싱 레슬링 체조등 7개종목에 출전한다. 총감독은 李康平씨(漢陽大교수). 曺相鎬 체육회장은 "6위 이내에입선 가능성이있는 종목을 파견, 전력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한국선수단은 7월10일 결단식을 갖고 13일 장도에 오를 예정이다.

◇한국대표선수단

◆본부임원=張忠植(단장) 李康平(총감독) 李宗澤 李元翼(이상총무) 金聖圭(섭외) 元鍾世(경기) 金舜隆(의무) 吳鎭學(공보) 馬道一(사진촬영)

◆경기임원=李啓進(육상) 崔富吉 趙大濟(이상테니스) 李輔善(체조) 金菊鉉(펜싱) 金益鍾 張鎬成(이상레슬링) 崔正吉 朴韓(이상 농구) 曺培浩 朴振煥(이상배구)

◆국제심판=金璟洙(체조) 車大羽(레슬링) 朴勝洙(배구) 趙聖吉(농구)

◆선수

▲육상=張在根 金福柱 全炫大 田昌大(이상남) 金壽玉 申順浩 [illegible] 李廷順(이상여) ▲체조=權五龍 [illegible] ▲테니스=李今龍 金春浩 [illegible] ▲레슬링=[illegible] ▲농구=[illegible] ▲배구=[illegible]

스포츠現住所

頂上의 꿈 再現될까

세계에 이름떨쳤지만 洋弓場은 한곳뿐

洋弓

소질 못키우고 취미活動도 못살려

빈약한 學校시설 이용, 選手層 얕아

올림픽種目 채택이후 各國선 적극政策 지원

국내 스포츠가운데 양궁만큼 갑작스럽게 세계정상권에 올라선 종목도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지난 79년 베를린서 열렸던 제30회 세계궁도선수권대회서 한국은 金메달 5개, 銀1개, 銅1개를 휩쓸어 세계 양궁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또한 金珍浩가 혼자 4개의 金메달과 銀메달 1개를 목에 걸자 세계의 궁사들은 이 나어린 여고생에게 경이의 눈초리를 보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기 때문이었다. 놀란 것은 세계궁도계뿐만 아니었다. 국내 스포츠팬들조차 너무나 갑작스럽고 놀라운 전적에 반신반의했다.

스포츠팬들 중에는 이러한 쾌거를 통해서야 비로소 양궁이란 경기가 우리 나라에도 있구나하고 알게 된 이도 있었다.

한국 양궁은 세계선수권서 기량을 겨루어보기 한해전에 아시아지역 선수들과도 경쟁을 한적이있다.

78년아시아경기서 한국은 金메달1개(金珍浩의 개인종합)와 銀메달1개를 각각 획득했다. 이같은 결과를 놓고볼때 한국의 양궁수준은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정상권이라고 일단은 말할수있다.

61년 美8군 엘로트동호회로부터 본격적인 기술보급을 받은 한국양궁이 이처럼 단기간에 급성장할수 있었던것은 몇가지 이유때문으로 요약될수 있다. 우선 우리민족은 고대 중국으로부터 (東夷)라고 지칭될만큼 활쏘기에 소질이 있었으며 이 소질이 전래됐고, 비록 고유의 국궁과는 차이가있는 양궁이긴하나 이는 다른스포츠에비해 체력을 심하게 요구하지않기 때문이다. 또한 몇몇 학교이긴 하나 70년대 초반부터 학교체육으로 꾸준히 육성돼왔다는 점등이 이같은 호성적을 올리게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래대로의 풍토와 방식만으로는 여전히 세계정상권을 지킬수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양궁이 72년 뮌헨올림픽서 정식종목으로 결정, 지난 몬트리올 올림픽서 종목으로 첫채택되는바람에 각국에서 더많은 열을 올리고 있기때문이다. 30여년동안이나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 각국의 기량을 겨루어왔지만 올림픽종목 채택전과 채택후의 각국의 양궁에대한 정책적 지원책은 1백% 달라지고 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지난5월 光州 소년체전서 처음으로 양궁종목이 채택되는등 다소 나은 배려가 뒤따르기는 했지만 이런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각급학교의 양궁장을 제외하면 전국에 1개의 양궁장밖에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궁도부가 없는 학교의 어린이가 양궁에 취미와 소질을 가졌다하더라도 이를 살려나갈 방법이 없게돼있다. 이같이 제한된 궁도장때문에 양궁인구수는 증가될수가 없다. 美國이 2천5백만명, 日本이 1백50만명의 경기인구를 가진데비해 한국은 겨우 2천5백명밖에 되지않는다. 또한 양궁부를 가진 단체수는 2백여개가 되고, 일반팀이 15개에 이르지만 적극적으로 양궁팀을 육성하려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 겨우 팀을 유지하는 정도가 대부분인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0일부터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31회세계선수권대회는 한국양궁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실질적으로 판가름하는 심판대이다. 지난 30회 대회때는 양궁의 강국들인 공산권이 대거불참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기량을 저울질 할수 없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의 기록을 낼지는 속단키 어려우나 상위입상은 가능하다고 궁인들은 예상하고있다. 【金仁奎기자】

景城高 첫우승

승부차기서 光雲工꺾어

문교장관기蹴球

【晋州=聯】景城高는 9일 이곳서 폐막된 제10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고교축구대회 결승전서 光雲電工과 연장전끝에 0—0으로 비겨 승부차기서 10—9로 이겨 이대회 첫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전

경성고 0—0 광운전공 <승부차기10—9>

花郞팀 결단식가져 대통령盃 必勝다짐

제11회 대통령盃국제축구대회에 출전하는 한국대표花郞팀은 9일 정오 대한생명강당서 결단식을 갖고 필승을다짐했다.

◇한국대표팀

▲단장=朴東熙(부회장) ▲코치=金正男 ▲트레이너=金鍾坤 ▲의사=文政植 ▲선수=趙炳得(明知大) 崔光植(住宅銀·이상GK) 崔仁榮(서울市廳) 張外龍(延大) 朴景勳(漢陽大) 權五孫(서울市廳) 洪性號(할렐루야) 尹仁善(住宅銀) 李榮武(할렐루야) 趙廣來(忠義) 李康助(高大) 李泰昊(高大) 全仁鎭(忠義·이상FB) [illegible] 吳錫載(第一銀) 丁海遠(延大) 李太燁(서울市廳) 邊炳柱(延大) 趙敬衍(高大·이상FW)

大學선발팀 구성

월드게임등 국제야구대회 대비

야구협회는 7월 美國에서 열리는 제1회 월드게임과 캐나다에서 열리는 인터콘티넨털대회에 출전할 야구국가대표팀과 서울에서 열리는 제2회韓美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할 대학선발팀을 9일 구성, 발표했다.

국가대표팀은 魚友洪 金秉宇 姜秉徹감독을 코칭스태프로, 李善熙 崔東原 黃圭奉외에 최근 국내대회서 좋은성적을거둔 河基龍 任昊均 鮮于大泳 金始眞등을 새로투수로 기용했다.

◇국가대표팀

▲감독=魚友洪 ▲코치=金秉宇 姜秉徹 ▲투수=李善熙(포철) 河基龍(상은) 黃圭奉(한국화) 任昊均(한전) 崔東原(롯데) 鮮于大泳(제일) 金始眞(경리단) ▲포수=沈載元(경리단) 金鎬雨 ▲내야수=金貞洙 千普成(롯데) 宋大雄 金用熙(포철) 金在博(성무) 吳大錫(한양대) ▲외야수=金一權(한양대) 李海昌(롯데) 柳承鎬(한전) 張孝祚(경리단) 金鍾潤(한국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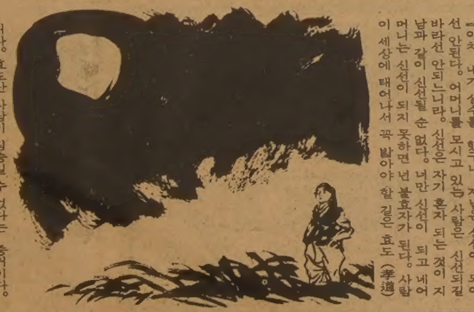
◇대학선발팀

▲감독=裵聖瑞 ▲코치=趙鏡衍 ▲투수=南雨植 裵龍洙(원광) 楊相汶(고려) 尹學吉(연세) 吳泳日 金相基(인하) 李相君(한양) 金泰根(동국) ▲포수=李萬洙(한양) ▲내야수=朴鍾勳(고려) 金文鉉(동아) 金慶男 李善雄 (인하) 金東再(연세) 朴榮泰(동아) 吳大錫(한양) ▲외야수=金一權(한양) 柳成玉(동아) 金泳均(연세) 金貞洙(고려) 成漢城(동국)

流星의 賦 <101>

李炳注 作 李友範 畵

紀昌의 길 ⑩



『사람이 살아가는 길엔 여러가지가 있다. 더러는 높은 벼슬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 더러는 재물을 탐하여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아무리 벼슬을 하려고 해도 할수가 없고, 재물을 탐해도 보람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하다고는 할수가 없다. 총명하고 의지가 굳센 사람은 속세를 피해 산으로 가서 도를 닦고 술(術)을 익혀선 천지의 신비에 화합(化合)하여 사는 수가 있다. 그것을 신선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섯살 난 홍계남이 이런 말을 알아 들을 수 있었는가만 김달손은 스스로의 한을 이렇게나마 표현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백년 전 억울하게 죽은 단종의 유적을 살피는 동안에 깊은 비감(悲感)에 젖어든 것이다.

『선생님은 신선을 보신 적이 있읍니까』

홍계남이 물었다.

『본 적이 없다. 신선은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스스로 신선이 되기 전엔 신선이 무언가를 알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한 많고 슬픔에 벅찬 세상을 살지 않고 살려면 신선이 될 수 밖에 방도가 없느니라』

그러다가 문득 김달손이 말을 바꾸었다.

『아차, 내가 실수를 했구나. 계남은 신선이 되선 안된다.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신선되길 바라선 안되느니라. 신선은 자기 혼자 되는 것이지 남과 같이 신선될 순 없다. 너만 신선이 되고 네어머니는 신선이 되지 못하면 넌 불효자가 된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꼭 밟아야 할 길은 효도(孝道)니라. 효도란 사람이 짐승일 수 없다는 증거이다. 어쩌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몰라도 어머니 살아 계시는 동안엔 신선될 생각일랑 말아라』

그리고는

『내일도 또 험한 산을 넘어야 하는구나. 실컷 자두도록 하라』

고 일렀다.

사건은 그날 밤에 있었다.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계남이 오줌이 마려워 바깥으로 나갔을 때가 삼경이 되어 있었을까. 그날은 장날도 아니라서 주막집 봉루에서 자고 있는 사람은 홍계남과 김달손, 그리고 약초를 캐러 태백산으로 들어가는 도중이란 노인밖에 없었다.

보름을 이틀쯤 앞둔 달은 교교하게 중천에있었고 멀게 가깝게 바라보이는 마을엔 불빛 한개 보이지 않았다. 적적한 산, 적적한 들, 적적한 마을, 달빛만 휘영청 밝았다.

풀벌레 소리도 없었다. 만상은 숨을 죽이고 있는데 계남의 오줌 소리가 놀랍만큼 높았다.

계남이 측간에서 돌아서서 걸음을 옮기려는무렵 어디선가 분간 못할 소리가 있었다. 귀를 기울였다. 확실히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여전히 분간할 수가 없었다.

(뭘까?)

하는 마음으로 사립문을 열고 들과 길이 내다보이는 곳으로 나갔다.

그때였다.

바람 소리가 휭 하는것 같더니 사람의 그림자가 우뚝 계남 앞에 섰다. 계남이 소스라치게 놀랐다. 몸을 돌려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덥석 팔을 잡혔다.

카펫 크리닝

카펫·소파·체어·타일·하드우드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 : 439—6277 박

SELECTIVE REALTY INS. LTD

①도매상매매(스피다이나선상에 있음) 주 $10,000 소매상에게 공급 권리금 $50,000

②도나스 샵 : 주$3500 권리금$126,000

③East End버라이어티 주$1800~2000 권리금 $10,000

④버라이어티 주$2300 권리금$12900

⑤전자제품가게 매매 권리금$34,900

⑥드라이크리닝 Plant Plaza내에 있음 Full-Equipped 주1400~1500 권리금 $69,000

⑦드라이·크리닝 Plant 주1200 권리금 권리금 $45,000

⑧Pick-up드라이크리닝 주1000 권리금 $13,000

⑨드라이크리닝 주900 권리금 12,000

NICK MALALI

☎ : 751—6850, (R) 439—7796

부모를 위한 씨알 교육강좌

"자녀들의 영어교육을 어떻게 도울 수 있나?"

1. Comprehension(독해력을 길러주는 방법)
2. Vocabulary Building(어휘 발달촉진 방법)
3. S.R.A. KIT사용법(과학적인 영어지도 방법및 자료소개)
4. Reading Material Display(1학년~9학년까지)당일 전시하는 전시대에서 책을 직접 구매 가능.
5. 영아들을 위한 교육자료 : Early Chidhood Education Material Display

강사 : 윤종석 선생님(10여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신 현직 국민학교 교사. 교육석사)

※베이비 씨팅 가능함

일시 : 1981년6월20일(토) 10:시~12시 까지

장소 : Deer Park Public School. 23 Ferndale Ave.

주최 : 한인교육위원회, 씨알한국인학교 공동주최

한인교육위원회 씨알한국인학교 공동주최

the Permanent

◇주택
- Yonge/Sheppard $128,000
- Finch/McCowan $139,000
- Queen/Woodbine $139,000
- Finch/ Bathurst $ 87,500

◇사업
- 가게(주$4,000)+건물 $106,000
- 꽃가게 (1주6일·10am~6pm) $17,500

황 순 일

481—3443 (사무실)

745—5485 (집)

1901 Yonge St. Toronto

the Permanent

Canada Permanent Trust Company/Real Est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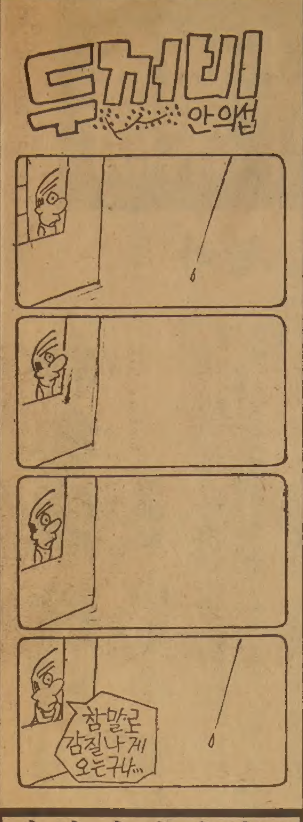
사과의 말씀

지난 6월6일(토)자 10면 전면 광고된

아카데미 TV & STEREO SANSUI CO의 씨리즈 900광고는

$2095.00을 $1095.00로 잘못 되었기에 이를 정정하오며, 광고주및 교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일보사 광고부



北傀지령 民團에 僞裝전향

安全企劃部발표

25회 잠입、工場차려 緣故者포섭

日거점 間諜團

국가안전기획부는 9일 일본을 거점으로한 우회침투간첩 孫裕炯(52·日本 大阪市生野區生野東3-9-23·節油제품생산회사운영)등 일당 6명을 검거하고 관련자10명을 계속 수사중이라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주범孫은 조총련商工會大阪生野지부회장으로 종사하다가 지난64년 7월 북괴공작원 玄民守에게 포섭된후 지금까지 18년간서식, 암호, 무인포스트등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39차례에걸쳐 對北정보보고를해 북괴로부터「국기훈장2급」을수여받았으며 수시로 국내에 잠입, 협조망을 구축하는등 암약을 계속해 왔다는것이다。

주범孫은 지난해 9월부터는 공작책 齋藤幸雄(齋藤)에게 인계되어 북괴지령에따라 民團으로 위장전향한후 東京을 거점으로 간첩활동을 해왔다。

孫은또 마카오, 자카르타등 제3국에서 북괴지도원과 접촉, 간첩활동의 토대구축을위한 위장기업설립등을 교육받고 공작금, 암호문건등을 수령했다。

孫은 지금까지 25차례나 국내에 잠입하여 연고자들을 중심으로 활동거점을 구축하고 북괴로부터 교육받은대로 明和전자회사(水原), 플래스틱가공공장(서울九老공단)등 위장회사를 차려 놓았었다。

孫은 그후 국내에 벌려놓은 위장회사들이 국내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 영업이 부진하자 금년 3월에 다시 북괴지령에 따라 자카르타로 가서 북괴의 對日本공작과장과 접선, 미화5천달러를 받아 재입국, 유류절약부품을 보급하는 위장회사를 국내에 설립하는등 거점을 재확보하기 위한 공작을 벌이다가 검거된 것이다。

◇간첩단으로부터 압수된증거품과 주범孫裕炯。

"결국 잡힐것 같아 내발로 왔다"

主犯 李·두內緣의妻 자수 行刑史上 최초 大脫走劇 1幕

非常網 아랑곳없이 劇場·여관·호텔 나이트클럽 오가며 전전

"의견안맞아 혼자만 自首"

5일간 서울에 檢問안받고 이곳저곳에"

우리나라 행형사상 유례가없었던 법정대탈주극은 탈주범과 검경합동수사반간의 4일간에걸친 숨막히는 숨바꼭질끝에 탈주극의 주범 李相勳, 공범 趙殷相과 馮弘楨의 내연의처 文仁子씨와 徐斗來씨가 9일하오 각각 대검찰청과 서울지검 南部지청에 자수함으로써 1막이 내렸다。탈주범들의 흉폭성과 대담성, 탈주후 4일동안 계속 서울시내를 배회했었던사실에비해 아무런사고가없어 다행스러운 결말이었다。그러나 마지막까지 여자들과 몰려다니다 9일하오 8시께 서울恩平區 연신내에서 헤어진 趙와 馮가 10일 새벽 4시현재 도피를 계속하고있어 한가닥 불안이 남아있으나 주범과 애인들이 모두 자수한데 자극을 받아 이들도 10일중으로는 자수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두共犯 오늘 自首할듯

◇자수한 두女人 초췌한 모습으로 수사본부에 자수해온 趙殷相의처 文仁子씨(右)와 馮弘楨의처 徐斗來씨(左). 이들은모두 馮와趙의 자수를 호소했다。

검찰에 자수한 李는「자신들의 탈주극이 신문을통해대서 특필되고 검경합동수사망이 좁혀지는데다가 공개수사까지 진행돼 결국잡힐것같아 자수하기로 결심, 이날 상오 서울恩平區 大棗洞 불광극장에서「아듀·아프리카」란영화를 구경한후 검찰청으로직행했다」고 밝혔고 文씨와徐씨도 같은동기로 자진출두했다고 진술했다。

주범李는 趙등 공범과 헤어질때 함께 자수할것을 권유했으나 듣지않았다고 밝히고 이들도 한시바삐 자수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자수한 李와 文씨, 徐씨가 밝힌 탈주극의 전모는 다음과같다。

탈주극의 주범 李相勳, 공범 趙와 馮의 애인인 두여자 등 3명이 자수, 도피행적을 밝힘에따라 탈주5일동안 검문검색이 얼마나 허술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탈주범들은 시종5명이 함께 행동, 서울시내의 여관과 극장, 호텔과 나이트클럽등을 드나들었으나 단한번도 검문을 받지 않았다。

특히 8일밤에는 이들이 한때 경찰과격투를 벌였던 해밀턴호텔에 투숙했으나 전문검색을 한번도 받지않았다。

물론 신분과 인상착의를위장했지만 수사본부가 처음부터 서울시내에 은신했을가능성이 크다고보고 숙박업소등에 검색을철저히 하겠다고한 수사방침이 철저히 이행되지 않은셈이다。

李의收監

서울 西大門구치소에 수감된 李相勳은 이날밤 엷은 밤색 언더셔츠에 하늘색바지차림으로 서울1가2802호 구형레코드승용차에실려 서울구치소 정문에 도착했다。

미남형의 李는지친듯 얼굴이몹시 초췌해보였고 카메라맨의 플래시가터질때마다 입을굳게 다문채 굳이냉정한표정을 지었다。

李는 수사관3명에 둘러싸여 교도관50여명이 늘어선 구치소입구까지 20여m를 걸어갔는데 끈질긴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귀찮은듯 짤막하게 대답했다。

한편 李가 수감되기 30분전 서울지검 南部지청 朴惠樓부장검사 金相喜 이성구검사등 3명이 심문서류더미를 들고구치소안으로들어갔다。

"이좁은땅 도망갈곳이 없다"

佛光극장「아듀 아프리카」본뒤 결심

脫走2일째부터 마음흔들려 自首거론

李相勳의 자수는「완전범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입증해줬다。

신출귀몰한 계획과 담대한 행동으로 완벽해보이던 李의 탈주극은 법정담장을 넘을때까지는「성공」했으나 완벽한 도주에는실패했다。

결국 옥중탈주계획상의 부산직행→선원수첩인수→라스팔마스도주까지의 계획은 탁상공론이었을뿐 그들은 서울시내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좁은 땅에서 도망칠곳이 어디있겠느냐。늦기전에 자수해다오』탈주범중 한사람인 趙殷相의 아버지가 띄운 공개자수권유는 바로李相勳의 뒤늦기는하나 대한 현실판단과 일치했다。

머리좋은 李는 탈주극의 계획에서 두가지사실을 오해했거나 잊고있었다。한국이 영화에서 나오는 미국이나유럽이 아니라는사실과 신문과 방송의 사건보도가주는 중압감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것이다。

대검에 제발로나타난 李는『아무리 궁리해봐도 도망갈곳이 없었다』고 자수동기를 털어놨다。

탈주범들이 법정탈출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의 과정은 베테랑 수사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완벽한것이었다。미리 도피자금을 마련하고 택시를 탈취하고 옷을갈아입고 애인을챙긴것까지는 나무랄데가 없는 것이었다。그러나 그이후 부터는 계획이 맞아떨어지지못해 우왕좌왕하고 말았다。외국 갈데가 없는 것이다。영화에서처럼 넘으면 끝나는 국경이 있는것도 아니었고 바다를 건네줄 배도없었다。서울을 벗어나봐야 잘곳이없었던 것이다。

탈주범들이 처음으로 자수를 거론하기 시작한것은 탈주 이틀째인 6일부터였다。

자고나면 대문짝만하게 사회면 톱으로 자신들의 행적이 보도되는것은 이들에게 불안감을 지나 절망감을 안겨주었다。더이상 몸부림쳐봐야 체포는시간문제라는사실이 이들 모두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번갈아 경찰과 친지에게 전화를 걸어온데이어 급기야는 趙殷相이 永登浦경찰서로 직접 전화를걸어 자수의사를 밝히는데까지 이르렀다。

동행한 애인2명을 포함해 일당5명은 8일밤을 여관에서 뜬눈으로 지샌후 9일아침 佛光극장에서「아듀·아프리카」라는 영화를 단체관람했다。

그들이 희망목적지로 삼았던 라스팔마스가 아프리카라는점을 생각하면「아듀·아프리카」는 공교롭게도 심상치않은 제목의영화。李는 이미 전날 동료들에게 탈주극의리더답게 자수를맨먼저 제의했고 그시간을「아듀·아프리카」를보고 난다음으로 정했다。

李는우리나라수사기관과 교도행정에도 반성의 기회를 주었지만 범법자들에게 하나의 진리를 가르쳤다。「완전탈주」란 한국사회에서 있을수 없다는 사실을。【金時鐘기자】

두女人, 犯人은닉죄 해당

자수한 文仁子 徐斗來여인의 처벌여부에대해 검찰은 3명의 탈주가 이미 이루어진후에 여자2명이 합류했으므로 최고 징역10년까지인 형법147조 도주원조죄나 특수도주방조죄가 성립되지않고 징역3년이하인 범인은닉죄에해당된다고밝혔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이들이 탈주범과 사실혼관계에 있고 자수를 했으므로 보다 관대한 처분을 내릴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藥物服用 적발땐 永久제명

大陸間 力道선수권대회 매년개최

IWF聯盟委 결의

역도선수가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날경우 영원히 선수생활을할수 없게됐다。[illegible] 지난28일부터 [illegible]「81년도 [illegible] 국제역도연맹(IWF)집행위원회가 약물복용선수에게 종전 [illegible] 1년에서 영구제명을 결의했다고 밝히고 내년부터 각지역대표선수들이 참가하는 대륙간역도선수권대회가 해마다개최된다고 알려 전했다。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필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743-8224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W.	741-5411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주일오후 2:00 영어예배 오후 2:00	200 Wolverleigh	466-843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회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미시사가연합	유환진	주일오후 2:00 학생영어예배 오후 1:30	2500 Mimosa Row 미시사가	276-5163 277-2394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241-2544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 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38 Ellerslie Av. Yonge과 Finch	423-9324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925-852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교회	김옥희 전도사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675 Sheppard Av.E.	752-9727 752-9860
선교교회	안상엽	주일 1:00 저녁 7:00	1 Greenland Rd. (Donm 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2:0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회8:00	1 King St. Weston	881-7182 247-9577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백낙순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466-4621 466-9511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98 Finch Ave.W.	225-4430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er Dr. at Pape Ave.	423-8400 423-9880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 7:30 일요오후 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자유감리교회	여용순	오전11시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생명의전화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주교회	고종욱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임인환	주일오후1: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교화	유재신	주일오전11:00 낮12:30	353 Sherbourne St.	922-3863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1183 Davenport Rd.	535-6864 마음의양식 532-2121
해밀턴연합	권낙출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새한칼라현상소
결혼·돌·회갑 출장촬영
스튜디오 완비(각종증명사진등
630 Bloor St. Tech Photo Finishing Lab.
(B) 535-7772. (R) 741-2842

서울한의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 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왕진함)
주소 : 10 Blackfriar Ave. #216 Weston, Ont.(Kipling·Dixon)
한의사 김장석
☎ : 247-9347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성가및 설교테이프
●각종선물 용품, 백과사전(월드북)
월~토 오전10시30분~오후7시
714 BLOOR ST. W.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演劇「아마데우스」5개部門 휩쓸어

男優賞 머켈런 女優賞 라포테어 — 토니賞

【뉴욕聯合】獨逸작곡가 볼프강·아마데우스·모차르트의 생애를 영국의 극작가 피터·셰퍼가 극화하여 무대에 올린 연극「아마데우스」가 7일밤 금년도 토니상의 최우수작품상, 최우수남우상, 최우수연출상을 비롯한 5개 부문을 석권했다.

뉴욕市 브로드웨이에서 ~81년시즌에 공연된작품들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토니賞은 80 뉴욕연극계의 오스카賞이라 할수있는 최고영예의상이다.

이밖에 최우수 뮤지컬부문에는「42번가」를, 최우수여우로는 프랑스 샹송가수 에디트·피아프의 생애를 그린「피아프」에서 주연한 제인·라포테어를 선정했다.

최우수 남우상은「아마데우스」의 英國人배우 이언·머켈런이수상했으며 최우수연출상은 역시「아마데우스」의영국인연출가 피터·홀에게돌아갔다。

나의 이력서

<題字·玄信圭>

玄信圭 54

林木育種의 요람

초라한 施設속 포플러·소나무 改良

연구소라하기에는 아직 초라한 실험실에 불과했다。온실이라 하나 제대로 시설이 갖춰진것도 아니고 연구진이 짜여진것도 아니었다。그저 연구소를 닮은 작은 오두막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적어도 내게는 꿈을 잉태한 궁전이었고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가 열매맺을 産室이었다。미국의 삼림유전연구소에라도 들어앉은 회열에 젖을수 있었고 육종에 대한 정인도 솟았다。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과제이지만 그때의 시급한 목표는 헐벗은 산에 옷을 입히고 부족한 목재자원을 충당하기위해서는 速成樹의 육종이 당장의 과제였다。따라서 포플러 육종에 뜻을 두고 온실안에 꽃을 피우며 포플러 교배실험에 우선 착수했다。특히 포플러는 온도만 맞춰주면 꽃을 피우고 씨가 맺기때문에 겨울철에도 실험이 가능했다。

이듬해 봄이 오기를 기다려서 미국에서 가져온 리기다와 테다의 교잡종자를 비롯하여 폰데로사, 마테 뉴라디아타등 소나무와 사방잣나무등 각종 소나무류의 씨를 묘포에 뿌렸다。

포플러들은 모두 어느 정도의 잡종강세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희망적이었다。또 소나무들은 대부분 성장이 시원치 않았으며 월동을 힘겨워 했으나 리기다와 테다의 교잡종만은 가능성이 커 보였는데 특히 리기다에 비해 훨씬 앞서는 성장상태를 보였고 추위에도 강했다。

신종 포플러와 소나무의 육종가능성이 커가는 만큼 용기가 솟았다。실험실은 이제 내 정열의 실험실이기도 했다。

침식을 잊다시피 밤을 지새가며 육종에 미친듯 전심의 정성을 쏟아 부었다。

이러한 육종실험에는 조교수로 있던 任慶彬씨가 적극 도왔고 재학생이던 安建鏞씨(서울大농대교수) 沈相榮씨(육종연구소장)등이 함께 밤을 새며 조력해 주었다。특히 金鼎錫씨는 교사직도 버리고 합류해 왔다。金씨는 당시 仁川중학교교사였는데 우정 실험실을 찾아와 줄지는 봉급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욕을 불태웠다。

이같은 나에 못지않은 동지들의 관심과 정열과 애정으로 육종사업은 궤도를 잡아갔다。

그러나 연구비를 보조받는 사업으로는 부족했고 벅찼다。나는 다시 金榮俊산림국장에게 유럽여행에서 얻은 교훈을 설명했다。임목육종이란 학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자개량의 실제적인 사업이어야

◇임업기술의 요람이됐던 임업시험장 水原육종지장의 연구진과 직원일동。앞줄㊨가 2代지장장인 金甲成씨, ㊧는 미국인 토양보전 전문가 미첼씨。맨뒤 안경쓴분이 63년 육종연구소로 개편되어 첫 소장이된 金鼎錫씨。

더많은 研究費위해 農林部산하로…本格사업

하므로 대학연구실에서는 불가능하니 국가기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털어놓았다。이를 이해한 金榮俊국장은 任哲鎬농림장관에게 진언하여 56년 4월 6일 농림부령42호로 임업시험장 水原育種場을 설치하게 되었다。

우선 교배온실과 삽목 접목온실 4백78㎡, 저온저장실 73㎡, 보일러실 56㎡등의 건립예산과 정규직원 3명으로하여 발족했다。초대 지장은 金相灝씨가 부임했다。따라서 정부로부터의 연구보조금은 끊겼으며 그동안의 사용해온 대학의 연구실은 기초적인 연구만을 하도록하고 본격적인 육종사업은 신설된 場으로 바통을 넘겼다。

그해 11월말께 온실과 부속실이 완성되면서 새지장으로 金甲成씨가 교체되었다。

金씨의 정열은 대단했다。지장의 부지로 지정된 곳은 해방후 방치해 두었던 적산임야로 척박지였으며 많은 분묘와 무허가주택이 들어서 있었는데 그는 스스로 손발을 걷어붙이고 불도저를 끌고 곡괭이질을 하며 진두지휘,환경을 말끔히 정리하고 번듯한 묘포도 마련하여 임업기술의 전당으로 새 모습을 갖춰놓았다。

임목육종이라는 새로운 학문에의 동경과 개척정신이 이루어놓은 신념의 役事였다。

이 임업시험장 육종지장은 다시 시대적요구에 따라 예산과 인원을확보, 63년 발전적인 轉身을 통해 오늘의 임목육종연구소로탈바꿈했다。

國際技能올림픽 參加 한국代表團 壯途에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美조지아州 아틀랜타市에서 열리는 제26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한국대표선수단이 9일 KAL편으로 현지로 떠났다。

13일 개회식에 이어 14일부터 16일까지 본경기를 마친다음 20일 시상식을 갖게될 이번대회의 한국대표 임원및 선수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洪性澈 ◇단장=朴[illegible] ◇기술대표=金在中 ◇감독=卞種燮 ◇선수=▲朴根鎬([illegible]) ▲金圭德(프레스금형) ▲金容圭(정밀기계) ▲朴鍾元(시계수리) ▲金京[illegible] ▲[illegible](선반) ▲金益漢(밀링) ▲田岡熙(철골구조물) ▲朴商周(가스용접) ▲李惠鏞(목형) ▲崔寬鎮(전기용접) ▲金鎭星(타출판금) ▲沈敬輔(판금) ▲高仁煥(배관) ▲崔[illegible] 禹學均(공업전자기기) ▲[illegible] 炳烈(라디오·TV수리) ▲朴海滿 李相國(옥내배선) ▲洪榮宰(동력배선) ▲朴相煥(석공) ▲朴[illegible](조적공) ▲朴泰用(연와) 泰昊(미술도장) ▲金鍾九(가구) ▲全大河(미장) ▲尹泰石(창호) ▲李[illegible](목공) ▲金鍾穆(금은세공) ▲李敬子(미용) 鍾燮(양복) ▲朴昌東(이용) ▲金承[illegible](양장) ▲金富中(자동차수리)。

美에 技術韓國 떨칠 기회

國際技能올림픽 한국委 洪性澈회장

[인터뷰]

『제26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그 어느대보다 우리들에겐 여러모로 뜻있는 행사가 될것입니다。4연패의 꿈이 걸려 있는데다 개최지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과학기술의 최첨단을 달리는 미국이란것과 제5공화국 출범후 첫출정이기 때문입니다』

제26회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洪性澈회장의 설명이다。그래서 어느해 보다 신경을 써서 기능 연마에 힘을 기울였단다。

『지난해 11월 단일후보선수 31명을 선정, 5회에 걸쳐 평가회를 가졌읍니다。예측이긴 합니다만 12~13개 정도의 금메달은 무난히 따낼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洪회장은 예년 기록으로보아 12~13개정도의 금메달이면 종합우승이 확실시되나 경기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수 없다고 한다。

『이번대회에선 일본, 서독, 스위스, 자유중국등이 우리의 강력한 경쟁국이 될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일본은 지난해 두번에 걸친 전국대회를 치르는가 하면 [illegible]의 선지훈련도 가진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illegible] 크게 좌우하는것은 정신자세로 본다며 이를위해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할수있는 격려와함께 요령을 가르쳐 주겠다고 덧붙인다。

演劇 정보

李豪宰 모노드라머 민예극장 내일부터

극단 민예극장은 李豪宰모노드라머「약장수」를 11일~21일 秘苑열공간소극장에서 공연한다。공연시간은 평일 하오7시, 土·日요일은 하오4시·7시。

李씨의 81년도 한국연극영화예술상 남자연기상수상 기념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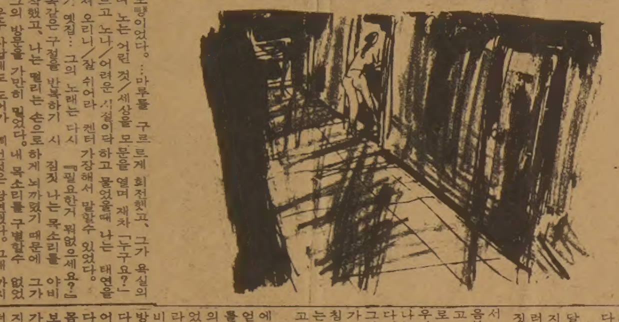
모눈종이 위의 生 <118>

趙善作 禹慶熙畵

그림자놀이㉗

문을 안으로 잠근 다음 나는 내 방의 키를 들고 복도로 나왔다。여전히 캡을 눌러 쓴 차림새로 나는 복도의 끝에서 계단 쪽으로 갔다。몇 개의 도어를 지나쳤지만 방들은 모두 빈 모양으로 건물 전체가 괴괴한 느낌이었다。계단에서도 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3층의 복도에 이르자 계단 오른 쪽의 맨 끝방에서 열려진 출입문 밖으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나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그의 방임을 알 수 있었다。나는 도어에 검정색 페인트로 표시한 방의 번호를 확인하며 불켜진 방 쪽으로 갔다。어김없이 불켜진 방이 309호였다。

도어는 반의 반쯤 열려져 있었고, 욕실에서 샤워의 물이 쏟아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뿐만 아니었다。그가 욕실에서 부르는 옹정이 불안한(그는 간신히 음치를 면한 노래 솜씨의 소유자 임을모 [illegible]) 노랫소리가 [illegible]



[illegible]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五輪 서울開催희망 폴렌陸聯會長 밝혀

아드리안·폴렌국제육상연맹(IAAF)회장은『오는 88년도 하계올림픽이 서울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올림픽 개최능력과 스포츠시설을 점검키 위해 ISF(국제경기연맹)조사단 자격으로 9일 내한한 폴렌씨는『日本 나고야는 88년 올림픽을 유치하기위해 스포츠시설 공사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히고『日本은 64년東京에서 올림픽을 개최한바 있어 이번에는 서울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당뇨병관리 講座 이달의內容·강사

서울당뇨병연구소(소장 金應振)는 매水요일 하오2시 서울鍾路區堅志洞110의7소재 동연구소(韓一빌딩302호실)에서 당뇨병환자와 가족을 위한 무료당뇨병관리강좌를 갖는다。

이달의 강좌내용과 연사는 다음과 같다。

▲10일=식이요법(李秀子 乙支병원영양과장) ▲17일=당뇨병과 합병증(金穆鉉 漢陽大의대내과교수) ▲24일=당뇨(尹[illegible]植 수송의원원장)。

구 인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531—0474

지렁이잡이 원함(유경험자)
힌치와 웨스톤지역, 최고가격
☎: 243—7736 미스터 리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533—0910 피터

유경험자 지렁이 잡이 구함
5명에 한하여 승용차로 모심.
☎: 881—1962; 221—7500

경험있는 재봉사 구함 : 일할 수 있는 좋은 조건과 지불, 우수한 이익. 600 SPEEDROCK DR. DOWNSVIEW
☎: 630—7777 LOUIS

재봉사 구함(LADIES' SPORTSWEAR)
번봉, 오바로꾸, 단, 풀타임, 파타임 or PIECE WORK
292 PARLIAMENT ST. AT DUNDAS ☎: 362—2300

입주하셔서 애기 봐 주실분 구합니다 :
미세스 하
☎: 665—4835

20세 전후한 남녀
풀타임 캐쉬어 구함.
☎: 742—0800

도넛샵 카운터 헬퍼구함
☎: 781—5174 미세스 정

스토아 여자 캐쉬어 구함
(토, 일요일, 12~8시까지)
☎: 921—0624

스토아 매니저 구함 :
신원이 확실하고 보증인요. 대우2500불 이상
몬트리올 지역임 ☎: 514 932 7775 미스타 조

스토아 매니저 구함
$15,000. 보증금 요함. 수입 $3,000 개런티
☎: 635—9585

웨이트레스 구함 :
☎: 536—0290
한 국 관

버라이어티 스토아에서 일할
경험있는 남자헬퍼 구함
☎: 532—6160

재봉사 구함 :
KEELE & LAWENCE 주간및 야간
☎: 243—3330

재봉사 구함 (남·여)
•약간명 •유경험자 •좋은 대우
•핸드백 만드는일
인터뷰 원하시는 분은
CALL 251—2543 AVIS

매매및 양도

좋은 비즈네스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1. $30,000보증, buy-back계약.
지역이 : 파트타임 년 $25,000 순수이 part-time)을 얻읍니다. 당신의 시간에 차고 이용할 수 있읍니다. 투자금액은 $3890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821—2151로 전화 바랍니다.
DELITE ECOLOGICAL SYSTEMS
6533 MISS. RD. L5N 1A6

코너 바라이어티 스토어와 빌딩급매 :
2층은 3 베드룸 살림집
☎: 1—529—0018 해밀턴 미스타 킴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주매상 $4500이상, 리스3년+5년 옵션
☎: 769 5956 3261 DUNDAS W.

그로서리 스토아및 빌딩 팝니다 : 이층 벽돌 건물이며 장래성이 많고 TUCK SHOP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음.
☎: 781 7080 458 CALEDONIA RD.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 $275
☎: 635—1038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ASKING $20,000+스탁
☎: 844 2922 392 KEER ST., OAKVILLE

FISH & CHIPS스토아매매 : [illegible]
리스5년, 렌트 $700, 오전10 7:30([illegible])
ASKING $45000 ☎: 366 1332

가게 팝니다 :
아파트 코너에 있음
☎: 252—7982

버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가장 적당한 Offer를 주시는 분에게 팔고자 함.
☎: 465—4003

성업중인 햄버거 샵 급매
다운다운지역
☎: 535—2804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6200—$6500이상, 렌트(스토아+2베드룸+지하실)
+로타리 MACHINE, $590, 리스5년 내방요함 3884 BLOOR W

77년 OLD MOVIL STATIONWAGON)Custom Crusier(
56,000마일 GOOD CONDITION $4950
☎: 224 1907

짧은시간에 수익좋고 다른메뉴 일체없는 Fish & Chips
2865 Jane St. 오후2시~7시 이후 상의 바람.
☎: 633—6281

비스네스 급매 : 좋은 위치에 자리잡은 간의식당(Fast Food)
Sherway센터안에 있음, 은퇴상 팔고자 함. Asking $95000
☎: 233—9866

프렌차이즈 벡커스토아 매매 :
1169 WOODBINE AVE.
☎: 423—7939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4800+로타리MACHINE, 스탁 물게지 가능함
3240 EGLINTON E. (MARKAHAM)

스토어 EQUIPMENT와 STOCK 팝니다.
1500 sq. ft 이상을 꾸밀수 있는 A급 장비임
☎: 241—7115.

①번잡한 다운타운 지역에 자리잡은 버라이어티스
주매상 $3,500, ASKING $29,000
②하드웨어스토아(DANEFORTH AVE.)
주매상 $2,500, ASKING $39,000+스탁
CALL : TRUSTWELL REALTY REALTOR
☎: 361—1226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 (구 플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
*각종 꽃종류, 조화, Plants취급. *꽃꽂이, 생일, 결혼, 장례꽃 전문. *어디든지 배달가능합니다.
☎ 769 0609 여 천 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1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2 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622 8516(B), 279 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 나 라 운 수
이삿짐 피아노, 쿨러 ☎: 630—6602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크리스티미용실 (크리스티 서브웨이 건너편)
남녀 노소 커트, 셋트, 파마 전문
727 Bloor St. W. (B) 533—2569, (R) 967—1518 미세스 박

자동차수리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한방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431—0102 MR. 박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B) 661—5667, (R) 742—9450 MR. 김

자동차, 집유리 설치, Repair합니다.
보험청구등 자동차 실내장치도 합니다.
MOON'S AUTO TRIM & GLASS LTD.
☎: 633 0656(B), 493 7185(R)
정 해 문(한치 X 김)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781 0200

SOO. PIANO SERVICE 222—4662
SIMSON'S의 써비스를 독점 대행하고 있는 회사.
액숀조정, 건반, 캐비넷칠,조율 중고매매.김 수 용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에어콘·히팅·냉장고

각종냉장고 (가정용및 상업용)
ELECTRIC STOVE수리전문
☎ 466 4304 469 3341 박 기 창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221 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 창 영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746—0675 박 종

구 혼

구 혼
본인은 캐나다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각오가 되어있는 남자로써 저와같이 평생을 동고동락 할 수 있는 배우자를 찾고 있읍니다. 취미있음
본인 28세, 대졸, 5′8″, 150파운드, 독서에
연락처 416 241 5438(Collect Call무방)

집·방세·하숙

1 베드룸 아파트먼트 FOR렌트
킬과 던다스 지역
☎: 743—4787, 960—6263 미스타 최

광고가 필요하십니까?
한국일보 광고국에 문의하십시오.
533-2361-4

교포위문대공연!!

●최고의 인기 정상가수 총출연 ●최고의 가수진 ●최고의 캄보밴드 ●최고의 코메디안

◎일 시 : 1981년 7월3일(금)
저녁7시30분

◎장 소 : 추후 발표

◎주 최 : 한국일보사

해병전우회및 한국참전용사회 합동 야유회

30년전 젊은 청춘으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공산군과 전투하다가 부상을 당하였거나 늙으신 한국참전용사회원들에게 고국풍미가 가득담긴 불고기와 김치를 정성껏 대접하려 하오니 해병전우회원 가족들은 전원참석하셔서 그들과 하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7월11일(토) 오전11시
장 소 : PETTICOAT CREEK CONSERVATION AREA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참 고 : 불갈비및 음료수는 전우회에서 준비함, 우천시는 다음주로 연기함.
연락처 : 해병전우회 임원

회 장	남 상 현	846－2444	섭외부장	김 성 배	699－6583	고 문	고 종 옥 863－0415
부 회 장	최 장 복	493－0825	체육부장	이 인 모	698－2945	(가나다순)	박 동 열 679－7390
총 무	김 명 정	652－0370	진행부장	하 주 용	537－1915		정 운 학 444－9515
부 총 무	송 기 선	270－0876	오락부장	서 동 헌	499－9925		홍 도 익 291－3699
재무부장	이 희 용	825－0779	감 사	박 찬 도	924－5155		

추가 : 한인회 주최 야구대회에 참가하오니 야구선수및 전우회원 가족은 한분도 빠짐없이 나와서 응원 바람.
일시 : 1981년7월4일 오전9시정각
장소 : Coronation Park(CNE옆)

해 병 전 우 회 장 남 상 현